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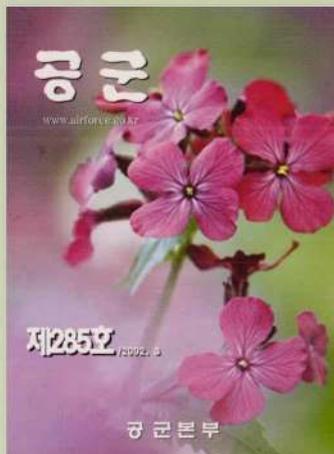
www.airforce.go.kr

제285호 / 2002. 3

공군본부

C O N T E N T S

참모총장 취임사		3
공군은 지금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8
생각해 보시다		9
칼럼		10
기획특집		12
Air Power		14
세계의 항공기 열전/구소련편		17
특별기고		18
Zoom-In		22
공군이 변한다		25
현장탐방		26
이달에 만난 사람		27
만나고 싶습니다		28
		30
		30
		31
		32
		33
		34
		35
		36
		38
		40
		41
		42
		43
		44
		46
		47
		48
		49
		50
		50
		50
		51
		52
		54
		55
		56
		57
		58
		59





제27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대욱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

역대 공군 참모총장님 !

합참의장님 !

육군, 해군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임하시는 동안 「새천년 선진정예공군 육성」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영예롭게 전역하시는 이억수 총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인계해 주신 주요 과제들은 공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

본인은 오늘 명예에 의하여 공군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받들어 여러분과 함께 조국 영공수호와 공군발전에 헌신진력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최근의 국제정세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반테러 전쟁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군사제일주의 노선은 아직까지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환기적 안보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군이 해야 할 일은 국가안보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일입니다.

특히, 눈앞에 다가온 월드컵 대회 등 4대 국가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완벽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

우리 공군의 선배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공군발전을 위한 무한한 정열과 굳센 신념으로 오늘날의 공군을 성장·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21세기 공군을 이끌어갈 우리들의 뒝은, 선배들의 정신과 과업을 이어 받아 정보전, 사이버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 정예 공군」을 건설하여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먼저 우리 공군이 미래전 수행과 국익수호의 주도전력으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과학군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확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첨단인 신지식과 창의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여,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자기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높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인간중심의 지휘관리」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일할 때는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생활은 가족과 같은 화합과 사랑으로, 공군의 목표를 위해서는 한 목소리로 굳게 단결하는 「선진 공군문화」를 뿌리깊이 정착시키는데 솔선수범으로 앞장 설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업들은 총장 한 사람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공군 전 장병 및 군무원, 선·후배 전우 등 공군인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노력할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무기체계가 발전해도 전쟁수행과 군 발전의 궁극적인 주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의 장래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공군 전 장병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국가를 보위하려는 헌신적인 열정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단결하여 규정과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군」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의 튼튼한 토대 위에, 올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공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땀땀이 보여 줄 수 있는 「멋진 공군」, 「자랑스러운 공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상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공군참모총장의 대임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식전을 주관해 주신 장관님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임기간 중 공군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영예롭게 이임하시는 이억수 장군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건투와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O.K. Air Force



1



2



3

제27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1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거행된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김대욱 총장(가운데)이 김동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권 이양을 의미하는 공군기를 넘겨받고 있다.

2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김대욱 총장(가운데)이 전임 이역수 총장(오른쪽)과 함께 열병을 하고 있다.

3 대전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신임 김대욱 공군참모총장

R.O.K.A



4



5

4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피랍항공기 대응훈련을 실시한 작전사령부

5 동계 전술훈련에서 적기 추적훈련을 실시한 방공포병 장병들

6 월드컵 대비 항공기 공중납치 대응 및 지상 대테러훈련을 실시한 제20전투비행단

7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 도착한 C-130 항공기에서 군수물자를 하역하고 있는 57공군수송지원단 장병들

8 유사시 활주로 긴급지원대 소집훈련을 실시한 제17전투비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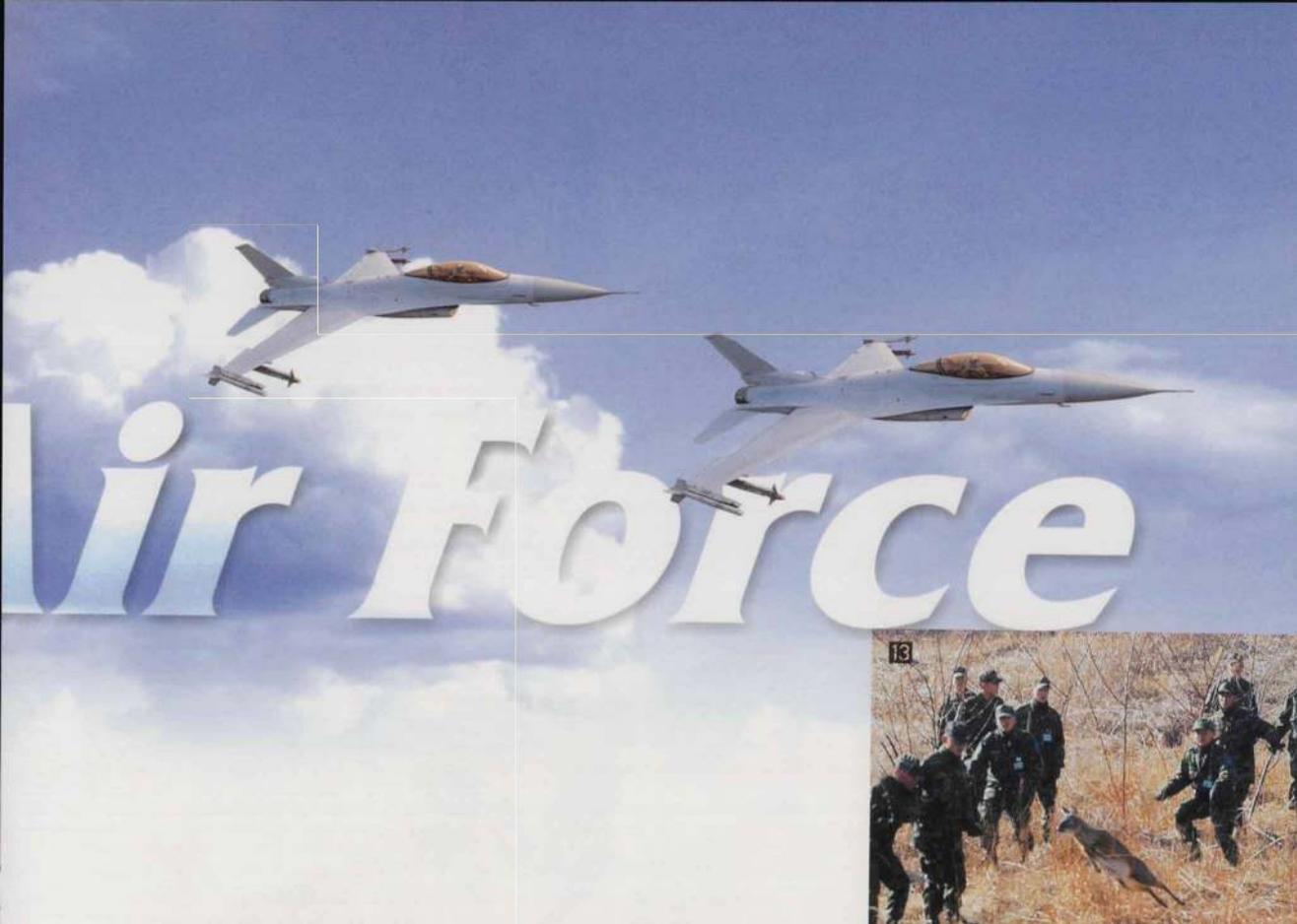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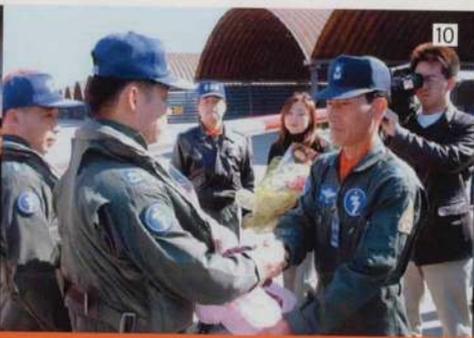


8



Air Force

- 9 공군대학 고급지휘관 참모과정 입과 외국군 학생장교 후견행사를 가진 공군본부 교훈감실
- 10 1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3훈련비행단
- 11 월드컵·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꽃동산·꽃길조성 동전 모으기 운동을 실시한 제3훈련비행단
- 12 부대 인근지역 자연정화활동을 펼친 제11전투비행단
- 13 부대내 야생 고라니를 안전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제18전투비행단 장병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6·25 참전용사를 방문,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군수서령부 장병들



▲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제16전투비행단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제19전투비행단



▲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을 초청, 기지견학 행사를 실시한
제8전투비행단

봄이 오는 길목

제1전투비행단 중령 박영수



운과 더불어 한 해의 모든 일을 새롭게 하고자 마음을 정돈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작의 계절이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날에 하는 일이 없다”라는 성현의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들도 출발점과 목적지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목적과 목표 없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는가? 신년이 시작될 때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고 봄의 생기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자. ❷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정해 놓은 주기(週期)가 바뀌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해가 가고 음을 우리들이야 알겠지만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부산함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또 여름이 온다. 누가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순환이요, 천리(天理)인

것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법석을 떨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봄은 찾아오고 신년에 세웠던 계획들은 희미해져만 간다.

입춘의 길상(吉祥)을 지나 이제는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움트는 길목에 서 있다. 봄은 겨우내 움츠려 있던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기

慾望과 幸福

모든 인간은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고등락(離苦登樂)을 추구한다. 인간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리는 주체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고등락(離苦登樂)을 추구한다. 인간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리는 주체로서, 많은 재물과 사랑스러운 이성, 맛있는 음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명예,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한 건강 등 소위 “財色食名睡”의 오욕(五慾)을 바란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돈 생각이며,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생각이요, 셋째는 먹는 것 생각이요, 그 다음에는 우쭐대고 싶은 명예욕이며,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다. 동시에 모든 인간이 하는 행동이나 말의 대부분은 이러한 욕망에 대한 추구이다.

幸福

慾望

삶을 추동하는 다섯가지 욕구

이러한 오욕의 추구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바이며 또한 이를 무시한다면 오히려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갑자기 모든 인간들이 이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후손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고전인 주역에서도 남녀의 교감을 함(咸)이라는 괘(卦)로 표현하여 가정의 근본이요,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에 다니고, 퇴근 후에는 사랑스러운 이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 삶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오욕의 충족이나 우정을 통하여 느끼는 형이하학적인 樂이 아니라, 배움을 통하여 느끼는 기쁨인 형이상학적인 悅의 단계까지 충족되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 문 환

형이상학적 기쁨을 향해

한편 논어의 첫 장에서는 '有朋이 自遠訪來 하니 不亦樂乎아, 學而時習之 不亦悅乎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樂이라고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의 즐거움은 悅이라고 말하였다. 즉, 樂은 형이하학적인 행복이고 悅은 형이상학적인 행복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오욕의 충족이나 우정을 통하여 느끼는 형이하학적인 樂이 아니라, 배움을 통하여 느끼는 기쁨인 형이상학적인 悅의 단계까지 충족되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설파하였듯이 인간은 생각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하고 사는 동물인 바, 우리는 넓고 깊으며 크고 높은 생각을 하기 위해 대개는 10년 이상 힘든 학교에 다니며 배우는데 힘을 쏟는다. 많이 배운 사람은 식견이 넓어지고, 식견이 넓어지면 높이 나는 새가 많은 사물을 보듯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한편 많은 사람은 영생에 대한 기원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고통을 멀리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구원을 준다고 믿는다. 즉, 우리 인간은 오욕을 넘어 형이상학적인 구원에 대한 욕심 내지 영생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며, 이것의 충족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온 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 왔는데, 무엇에 이끌려 왔는지, 또한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어떤 이는 길고 어떤 이는 짧은 한 평생을 산다. 또한 언젠가 돌아가야 하는 그 곳은 천당인지 극락인지, 아니면 지옥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그 곳으로 간다. 그 점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그 주체'가 욕신과 이별할 때 가는 이 곳을 알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참다운 만족인 영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곳에 가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 때문일까, 아니면 날바나(涅槃)에 오르는 것일까? ↓

항공 우주교리의 메카

미 공군 교리본부(Air Force Doctrine Center)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소령 이 병 빈

“전쟁의 심장부에는 교리가 있다”(At the very heart of warfare lies Doctrine). 미 공군 교리본부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접한 문구이다. 이 한마디가 미 공군 교리본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대변한다.

미 공군 교리본부 소개

미 공군 교리본부는 1997년 2월 23일 알라바마주 맥스웰기지에 창설되었다. 당시 교리본부를 설립한 인물은 참모총장이었던 로널드 포글먼(Ronald Fogleman) 장군이었다. 포글먼 장군은 걸프전 이후 항공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미 공군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원인을 교리로부터 찾았다. 그 결과 공군교리의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기 위하여 참모총장 직속의 교리본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교리본부의 주요임무는 교리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공군 기본교리·작전교리 및 다국적 교리를 연구·발전시키는 데 있다. 또한 주요사령부(MAJCOM : Major Command)와 협조를 통하여 전술적 수준의 교리를 발전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교리본부는 2성장군인 데이비드 F. 매기(David F. Macghee, Jr.)가 사령관 직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총 91명의 구성원이 미 공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미 공군 교리조직 및 체계

1. 교리조직

미 공군교리 본부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리발전부(DR : Doctrine Development)는 항공우주력 교리를 만들고 연구 발전시키는 부서이며, 교리응용부(DO : Doctrine Application)는 공군·타군 및 합동 위게임과 각종 연습에 참여하여 교리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 교리개발에 재적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리전개부(DD : Doctrine Deployment)는 교리적 관점에서 참모총장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신규 임용자 및 교관들에 대한 교리교육을 담당한다. 합동교리부(Joint Doctrine)는 합동전역에서 공군교리 개념을 반영하고 합동·타군교리에 참여하는 등 대외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대외 연락반(OL : Operation Locate)은 육군기지에 파견되어 공군교리, 조직 및 작전개념 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 파견부대 지휘관·참모에게 공군교리 및 개념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미 공군 교리본부는 교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각종 위게임 및 훈련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교리개발에 재적용(Feedback)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외 연락반 운영을 통하여 타군 및 합동교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군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능력에 부합되도록 본연의 위상을 제고하고, 합동교리와 타군교리에 항공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2. 교리체계

미 공군의 교리체계는 “어떻게 하면 항공우주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교리체계는 항공우주력의 조직과 운용에 필요한 원리·원칙을 전제로, 실제 적용 가능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수직적으로는 기본교리(Basic Doctrine), 작전교리(Operational Level Doctrine), 전술교리(Tactical Doctrine)로, 수평적으로는 항공우주력의 주요한 기능(Functions)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미 공군교리는 미래 전장환경 및 작전개념에 적합토록 작전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아가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들도 연구 발전시켜 교리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작전분야 이외에도 리더십(Leadership)과 같은 분야를 교리로 발전시키고 있다.

공군 교리체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제언

미 공군 교리체계 및 조직을 접해본 결과를 토대로, 한국 공군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공군도 교리를 공군력을 조직하고 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 공군 교리체계는 기준교리와

운용교리가 참모기능별, 병과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공군력의 조직과 운용이라는 관점에 주안을 두지 못하고, 편제상 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공군력이 현대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교리체계를 작전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교리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일조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미 공군 교리본부와 같은 독립적이고 단일한 교리기구를 창설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교리업무를 총괄 조정·통제하고,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교리연구실을 신설한다면 공군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리의 개발과 함께 교리를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끝으로 전략형 공군력·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교리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기대해 본다. Ⓡ

한국공군도 교리를 공군력을 조직하고 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즉, 공군력이 현대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교리체계를 작전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밀 공중공격(1)

- 왜 정밀공격이어야 하는가?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정밀공격은 군사혁신을 포함하여 미래의 전쟁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번 호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정밀공격에 대해 4회에 걸쳐 살펴본다.

1. 왜 정밀공격이어야 하는가?
2. 정밀공격의 사례
3. 정밀공격 시스템
4. 정밀공격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최근의 전쟁양상은 항공력에 의한 정밀공격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미래의 전쟁양상을 예측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정밀공격이며 가장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형태이기도 하다. 정밀공격은 군사혁신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에 발맞추어 교리·작전개념·조직개념 등을 갱신하여 군 작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군사분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군사혁신의 과제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정밀공격능력 신장이다.

미래전을 대비한 미국의 지침서인 Joint Vision 2010 Concept for Future Joint Operation에서도 우세한 기동, 통합된 군수지원, 전방위 방호와 함께 정밀교전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밀공격이 중요시되는 것은 정밀공격의 적절한 활용이 핵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에 못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밀공격 양상은 걸프전을 시작으로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밀공격이 현대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일까?

정밀공격의 정치적 의미

미국을 비롯하여 군사적 강대국들이 항공우주력에 바탕을 둔 정밀공격에 주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이유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오늘날 사회는 아무리 그 전쟁이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대규모의 살상은 용납되지 않는다. 만약 민간인 희생을 비롯한 부수적 피해가 클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그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전쟁수행시 부수적 피해 최소화라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정밀공격



이다. 현재의 첨단과학기술은 CAISR과 항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표적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고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오늘날은 인종, 민족, 영토, 식량, 환경 등 다양한 갈등요인과 테러, 저강도 분쟁 등의

위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여 정밀공격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공격의 대상을 테러집단과 그 지원세력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밀공격 위주의 작전을 펼쳐 여러 국가들이 우려한 확산을 방지하였다. 만약 테러집단을 와해하기 위한 폭탄이 종교시설이나 특정 종족 밀집지역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문명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셋째, 항공력에 의한 정밀공격 수행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정책결정자들이 분쟁과 갈등상황에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지상전 위주의

군사혁신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에 발맞추어 교리·작전개념·조직개념 등을 갱신하여 군 작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군사분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군사혁신의 과제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정밀공격능력 신장이다.

작전을 할 경우 아군에게도 많은 희생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많은 희생은 여론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전쟁에 패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넷째, 정밀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강한 강압 및 억제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밀공격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정보력을 바탕으로 강압 및 억제 혹은 응징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의 확보는 정치외교적으로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정밀공격의 군사적 의의

정밀공격은 군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군사력 건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은 연계를 통하여 기술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군사적 이점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첫째, 전쟁수행의 효율성이다. 과거에는 대량의 폭탄이 소요된 것도 오늘날은 한발이면 족하다. 리차드 헬리온의 저서 Storm over Iraq에 의하면, 60×100피트 면적에 명중하기 위한 폭탄투하 개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070개인 반면, 걸프전에서는 30개로 줄어들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항공기는 3,024대에서 8대로 줄어들었다. 명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다 소수의 병력과 항공기를 투입하고도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아군의 피해를 감소시켜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 표적에 제집근, 재공격을 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어 추가 공격이 필요치 않으므로 전투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아군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항공력 기반의 정밀공격능력은 전쟁에서 결정적 전력으로 작용한다. 정밀공격은 적의 중심을 빠른 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전략적 차원에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C4ISR을 기반으로 적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격할 수 있기에 항공작전 위주의 전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넷째, 산악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 등 비대칭전에도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은 걸프전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이 산악지형이고 구소련과의 전투경험으로 게릴라전에 강하므로 장기전을 예

상, 지상군 조기투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의 항공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상전 투입을 자제하는 항공작전 위주의 정밀공격을 실시한 결과, 빠른 시간 안에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항공력에 의한 정밀공격이 게릴라전, 산악전 등 경보병에게도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부수적 피해가 적은 정밀공격능력 확보로 인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갈등요인 해결방안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호전성을 지닐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도 존재한다. 또한 비록 정밀 무기가 사용되는 경우라고 해도, 어느 정도

부수적 피해의 위험과 그에 따른 여론의 비등 가능성은 있기 마련이다. 항공력 단독으로 승리를 확고하게 다질 수 없고 다소간의 지상병력이 항상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생각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전쟁이란 명백히 각각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전쟁 경험으로 모든 군사문제를 해석하려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력을 이용한 정밀공격은 1991년 걸프전, 1995년 보스니아, 1999년 코소보,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항공작전 위주의 정밀공격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

항공력을 이용한 정밀공격은 걸프전, 보스니아, 코소보,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왔다. 이 모든 전쟁에서 항공작전 위주의 정밀공격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Tupolev Tu-160 Blackjack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Tu-160 Blackjack은 미국의 B-1에 대항하고 자 구소련에서 개발한 유도탄 탑재 가변익 전략폭격기로 1973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981년 12월 19일에 첫 비행을 시작하였다. 저고도 침투와 60,000ft 고도에서 마하 2 정도의 초음속 또는 아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소련에서 발전,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 최초의 제트 폭격기이다.

이 폭격기의 존재 사실이 서방세계에 알려진 것은 1981년 말, 구소련 라멘스키에 비행장에서 첫 비행 준비 중인 장면이 정찰위성에 포착되어 미국의 항공우주전문지에 게재되면서부터이다. 가칭 Ramp-P로 불리었으며 그 후 Blackjack이라는 NATO식 명칭이 붙었다

1988년에 첫 번째 비행부대가 창설되었고 1989년부터 구소련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계속적으로 참가해 백파이어 폭격기보다 오히려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구소련은 이 기체의 데이터 일부를 공개하고 Tu-160이라는 제식명칭도 확인한 바 있다. 항공기 형태는 미공군의 B-1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날개는 후퇴익으로 20°, 35°, 65° 등 3단계로 움직인다. 주날개 하면에는 지주나 외부 발사대가 하나도 없고 동체 내부 2개 구역에 회전식 발사대가 2개 있어서 유도탄이나 폭탄은 전부 기내에 탑재되어 있고 외부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 항공기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대기권을 비행할 수 있다.

탑재된 전자장비도 첨단수준의 것으로서

1백대 이상의 컴퓨터가 조종, 관제, 항법, 통신 등의 각 기능을 수행하며 승무원은 점검과 결정만 하면 되는 신뢰성이 높은 항공기로 평가되고 있다.

엔진은 사마라 NK-321 3축 터보팬 엔진이며 B-1의 경우처럼 2기씩 묶어서 글러브 아래에 장착하고 있다. 연료탑재량은 130t에 달하며 인입식 공중급유용 프로브가 레이돔 위에 설치되어 있다. 구소련은 1988년 중반까지 모두 12대의 Blackjack을 생산하여 구소련 동부 돌론(Dolon)공군기지에 인도함으로써 첫 번째 Blackjack대대가 창설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 Blackjack은 사정거리 1,620nm의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ALCM) AS-15Kent 이외에도 단거리 공격미사일(ARAM) 및 재래식 폭탄을 운용할 수 있다. 1990년까지 약 40대가 생산되었으며 구소련 붕괴 후에 우크라이나에 약 19대가 남아 있었으나 후속 군수지원이 되지 않아 운용이 힘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앵겔스(Engels)기지에 6대, Zhukovsky기지에 4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제원 및 성능

- 기장/기고/기폭 : 54m/12.8m/
주익 전개시 55.7m, 주익 후퇴시 33.75m
- 승무원 : 4명
- 엔진 : Samara Trud NK-321 Turbofan엔진
- 전투행동반경 : 7,300Km
- 무 장 :
 - 12×ALCM(AS-15) 또는 24×ASRAM
 - 재래식 폭탄 등 최대탑재량 45,000Kg

Guardian Angel

Linda Soltis/한국전쟁 참전 미 공군 소령(예) William Soltis의 딸

이 글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미 공군 William Soltis 소령(예)의 딸 Linda Soltis가 지난 2001년 대한민국 공군이 주최한 6·25 전쟁 50주년 기념 '공군 강릉기지작전 기념 행사'에 부친과 함께 참석했던 소감을 적은 것으로 미국의 Buffalo News지 2002년 1월호에 cover story로 실린 것을 요약·번역한 것이다.

(번역 : 전투발전단 소위 설인호)



나의 아버지는 Albion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전투기 조종사가 된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는데, 특히 한국전쟁에서는 100회 출격을 기록하는 등 큰 활약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처럼 전쟁 때의 경험과 감회를 내게 이야기 해주지 않으셨고, 나는 항상 아버지의 자랑스런 유산을 물려받기를 고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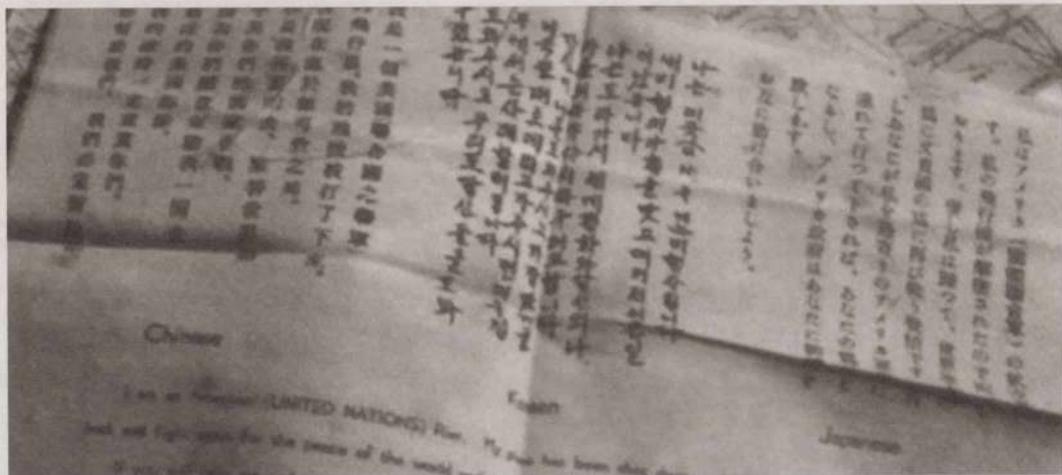
2년 전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로부터 해외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주에 병원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버지에게 전주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신비스럽게까지 보이는 낡은 비행지도를 생애 처음으로 내게 보여 주셨다. 그것은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100회 출격에서 직접 사용하

셨던 지도였다.

지도의 여러 지점 하나 하나마다 작전을 표시하는 기록들이 즐비하게 적혀 있었으며, 특히 한곳에는 특별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1951년 4월, 69번째 출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버지의 비행기는 그 작전에서 격추되어 한강에 추락했었다고 한다.

2001년 여름, 아버지는 불현듯 나를 집으로 부르셨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으신 것이었다.

그 초대장에는 "우리는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당신을 초대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참전용사이신 당신을 비롯해서 동일한 영광을 받



이야 하는 당신의 가족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렇듯 예상 못한 기회가 찾아와 주었다. 자랑스런 아버지의 기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 한국에 가요.” 내가 말씀드렸다. “너 혼자가지 않겠니?” 아버지는 올해로 79세이시다. “절대로 안되요. 아버지도 가서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기념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발신된 e-mail은 나의 이러한 생각에 굳은 확신을 주었다. 비록 지구의 반을 돌아서 가야 하는 먼 여정이었지만 내가 일생을 두고 찾아온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로 한국방문을 손꼽아 기다렸다.

역사를 손에 들다

출국 일은 11월 6일이었다. 비행장에서 아버지는 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의 천 조각을 보여주셨다. 낡은 천 조각의 한 쪽에는 미국, 한국, 유엔과 영국의 국기가 달려 있었고 다른 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로 적혀 있었다. “나는 미국(UN) 조종사입니다. 나의 비행기가 격추되어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 세계와 조국을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나를 가까운 미군 부대에

데려다 주시면 미국정부가 후사할 것이며 우리를 도운 것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을 끝까지 도울 것입니다.” 그 천은 아버지가 100회의 출격 동안 당신이 몰았던 P-51 무스탕에 항상 지녔던 것을 이제 5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역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아버지와 나는 다른 두 분의 미국 참전용사와 일행이 되어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우리는 버팔로로부터 1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젊은 요원들과 대한민국 공군의 정복을 착용한 군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목에 화환을 걸어 주었고 나에게는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다. 숙소로 도착한 우리는 캐나다에서 온 두 명의 참전용사를 더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일행은 최종적으로 여섯 명이 되었다.

애증의 분단선

참전용사 일행의 첫날 일정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안내는 대한민국 공군의 최중위가 맡았는데 그의 영어는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의 북부지역을 지나면서 나는 불현듯 이곳이 아버지가 추락했던 곳인지 물었다.

아버지는 피격에 의해 기체에 결함이 생긴 것을 알고 강가 모래사장에 비상착륙을 한 후 뒤집혀진 비행기로부터 빠져나왔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이후 공군측에서 준비한 공식 치하문을 통해서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1951년 4월 30일, 아버지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세 대의 무스탕 편대를 이끌고 산악 지대를 피해 저공비행을 하던 중 상당한 규모의 무기, 전차, 보급품 집결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강력한 대공포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공 집중사격을 가했고, 세 개의 대형 유류저장고와 최소 두 대 이상의 트럭과 지하에 배치된 적 전력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저공비행을 하면서 기체에 적이 발포한 총을 맞아 결국 한강에 추락하게 되었고 항공요원 구조반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어 다시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기억해야 할 유산

저녁 일정을 위해 도착한 서울의 하얏트호텔에서 나는 길게 늘어선 대한민국 공군 간부들의 환영행렬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참석한 참전용사 중 유일하게 당시의 공군 정복을 입으셨고 나는 아버지가 전장에서 입었던 점퍼를 입었다. 한 공군 장군님은 이러한 옷은 전쟁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직접 입은 것을 보게 되어 뜻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이는 창가쪽 자리에 앉도록 배려되었다. 곧이어 대한민국 공군의 참모총장이신 이억수 장군님의 환영사가 시작되었다. 참모총장님은 우리 일행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장에서 조국과 세계 평화를 지켜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포함니다. 특히 Soltis 소령과 Collins 중위(호주 참전용사)는 100회 출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해야 할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전통과 가치, 한국인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준 수호천사(Guardian Angel)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치하의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는 참모총장님의 사모님과 동석하셔서 담소를 나누셨고 끝날 무렵 참모총장님과 직접 만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다. 특히 참모총장님의 “Soltis씨, 당신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분”이라는 감사의 말에 아버지는 감회 어린 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앞에서 “이곳은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었구나!”라는 감탄을 연발하셨다.

그들이 돌아오다

다음날, 우리는 공군기지의 조종사 대기소를 방문했다. 참전용사들은 그곳의 여러 기물들과 내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분위기를 한껏 느끼며 깊은 감회에 빠져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서 우리는 공군 수송기편으로 강릉기지를 향했다. 강릉기지는 1951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비행기지였다. 야외음악회가 성대하게 치러진 후 강릉시장님이 주관하는 환영회가 있었다. 특히 그곳에서 만난 한국사람들은 아버지의 지도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행사일정의 세 번째 날이 밝아왔다. 이 날이 아버지와 나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영광된 기념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는 다시 강릉 비행장으로 향





했다. 우리 일행은 천여명의 한국 참전용사들이 운집한 장대한 기념식 행사장의 가장 앞줄에 안내되었다. 이어서 수백명에 달하는 공군 장병들의 퍼레이드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일행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되며 아름다운 한복차림의 여성들이 꽃다발을 선사했다. 나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퍼레이드를 따르던 네 대의 지프가 아버지와 Collins씨를 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환호하는 관중들 사이로 아버지는 환성에 답하며 손을 흔들었고 나는 정신 없이 사진을 찍었다. 옆에 있던 호주 출신의 참전용사 Knight씨가 내게 말했다. “그들이 돌아왔군요!”

공군 군악대의 장쾌한 음악에 맞춰 참모총장님을 선두로 한 자동차 퍼레이드 행렬은 운집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활주로를 순회하였다. 나는 지프차에 서서 참전당시의 공군 정복을 입고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후에 나는 아버지께 물었다. “그 때 차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격하셨다고 한다.

행사에 이어서 천여명의 사람들을 접대하는 초대형 야외만찬이 베풀어졌고 대장관을 이루는 대한민국 공군 곡예비행팀의 에어쇼

도 선보였다. 돌이켜 봐도 내 삶에서 다시는 없을 웅장한 기념식의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버지와 당신의 딸에게 감동적으로 인식시켜 준 순간들이었다.

영광을 함께 해야 할 동지들

마지막날, 우리는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의 실 하나 전체가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을 위해 할애되어 있었고 그곳의 한 벽면에는 전사한 미국인 참전용사의 이름이 길게 적혀 있었다. 기념행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그 방으로 다시 돌아와 한 이름 앞에 꽃을 바치셨다. 그는 아버지의 동료 참전용사인 Chauncey Aubre Bennett 중위였다. Bennett 중위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먼저 100번째 출격을 하게 되었다. 그날 지휘부는 심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한 고공폭격을 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Bennett 중위는 주저함 없이 작전에 들어갔다. 수차례의 접근실패 끝에 Bennett 중위의 편대는 폭격지점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지만, 총 네 대로 구성된 편대는 Bennett 중위를 포함한 세 대가 격추되었다고 한다. 그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튼튼한 안보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전쟁기념관에 새겨진 글귀이다.

기억해야 할 여행을 마치며

“100회 출격은 우리에게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버팔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안내를 맡은 최중위가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다.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고, 그것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회를 열어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공군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 🇰🇷

바로 찍어 바로 보낸다!

- 최고의 기술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공군 교재창 -

교재창 중위 조재용



교재창은 단순히 종이에 글씨를 인쇄한다는
1차원적 사고를 넘어서서
살아 있는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보다 진보된 매체를 만든다는 각오로
주어진 업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출근길에 오른 우리의 김하사! 언제 그랬냐는 듯, 피곤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이 위풍당당하게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만다. '아하! 현수막으로 기를 죽이시겠다! 그 나저나 참 멋지게 만든 현수막이네 그려!'

한껏 미학적 감수성에 도취된 채 학창시절 아리따웠던 미술 선생님을 회상하던 그를 일깨운 것은 다름 아닌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2002년 필수보급군가 '보라매의 꿈'이었으니. '이 곡을 함께 부르며 불타는 전우애를 다지던 훈련단 동기들도 전국 각지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듣는단 말인가?' 김하사! 격앙되지 않을 수 없었다.

타인에 대한 인식은 새로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법! 그간의 무기력과 매너리즘을 일거에 타파하리라는 굳은 의지로 가득 찬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 김하사는 '空軍은

國家防衛의 核心戰力'이라는 글씨가 아로새겨진 공군달력을 응시했다.

'뭘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군.'

공군수첩을 펼쳐든 김하사! 미루어 두었던 업무정리와 계획수립을 시작했으니, 바야흐로 업무보고판에 표시된 금연선포일 이후 2주가 흐른 뒤더라. 급한 대로 외출증, 휴가증, 출장증을 비롯한 각종 서식정리를 마친 뒤에 매한 사안은 공군규정집을 일일이 찾아가며 업무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다.

그간 벽인 줄만 알고 무심히 넘기던 2002년도 주요행사/업무계획 일람표에 눈길머 김하사! '공군 보안 감사(3~11월)' 항목에 이르러 보안 관련 각종 표어 및 포스터를 재 정비해야겠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이것저것 문서를 뒤적임 끝에 훌륭한 기안문을 만 들고야 말았으니, 그 기쁨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청아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점심시간임을 알리고 있었다.

맘흔린 만큼 맛나게 식사를 마친 김하사!



평소처럼 책상에 엮드려 온 정신을 '소화'에 집중시킬까? 아주 잠깐 갈등했던 그! 분명히 일어나 단숨에 읽어 내릴 요량으로 여러 간행물 중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으니 무엇이겠는가?

월간 공군 일 밖에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리도 올곧게 하는지! 평소 낱말퀴즈와 그림 위주로 채 5분도 되지 않아 월간 공군을 섭렵했던 그! 죽어도 발췌독이라 고집했던 스피드광 김하사! 역시나 사람은 보는 대로 믿는 다기보다 믿는 대로 보는 것이 맞다.

새로운 정신이 온 몸 구석구석 요동치고 있는 그에게 특히나 'ZOOM-IN' 코너가 감명 깊게 다가왔다.

보람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우리의 김하사! 오늘따라 로비에 마련된 부대 조형도는 물론이고, 그런가보다 했던 현관 부대마크도 뿌듯함으로 느껴지니,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 아니겠는가?

▶ 위의 지문에서 굵은 글씨들이 공통적으로 연상시키는 KEY-WORD는 무엇일까요?

그렇다. 답은 교재창이다. 아직도 많은 공군인들이 주위에 산재한 숨은 글씨 '교재창'을 제대로 인식해 내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

는 것은 흡사 '내가 지금 뭘 들이마시고 있나'라는 의문이 불현듯 들기 전엔 공기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비롯된 현상일 것이다. 이렇듯 교재창은 공군의 업무수행에 없어서는 안될 각종 서식 및 간행물, 시청각 교보재 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생산, 배포관리를 주임

무로 하는 부대이다.

1957년 서울 대방동에서 창설된 교재창은 1961년 중앙간행물관리소를 신설했으며, 1975년 공군본부 직할부대로 독립한 후 1989년 현재의 공군사관학교 지역으로 부대를 이전했다. 그동안 교재창은 비디오 녹화실 개관은 물론, 기존의 활판인쇄를 오프셋인쇄로 전환

공군의 후방지원부대로서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신과 자기개발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쇄소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공군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각종 첨단장비와 공정 도입을 통해 적기에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화 작업을 통해 공군의 후방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작년 8월 인쇄소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공군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각종 첨단장비와 공정 도입을 통해 적기에 최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 신국방 건설의 매개체

교재창은 크게 각종 서식 및 간행물 생산을 총괄하는 인쇄물제작소, 시청각 교보재와 조형물 등을 지원하는 시청각교재제작소, 이렇게 생산된 모든 것들을 배포, 관리하는 중앙간행물 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을 총괄하여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생산량도 만만치 않은데, 2001년 한 해 교재창에서 소비한 종이의 넓이가 약 100만평에 이른다는 것만으로도 교재창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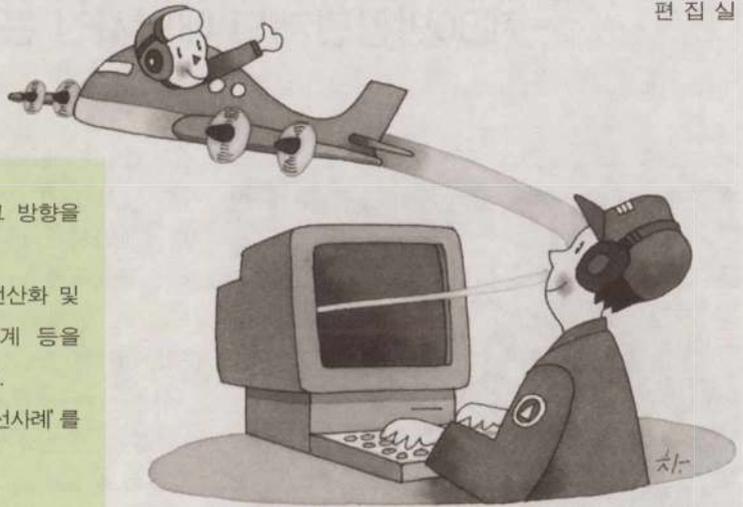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창은 공군의 후방 지원부대로서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신과 자기개발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신장비 도입은 물론이고 각종 첨단기술 습득을 통하여 단순히 종이에 글씨를 인쇄한다는 1차원적 사고를 넘어서서 살아 있는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보다 진보된 매체를 만든다는 각오로 주어진 업무완수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광고멘트를 기억할 것이다. 없는 듯 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것들!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업무이니 만큼 교재창의 자부심 역시 요란하진 않다. 다만 45년여에 걸친 장인정신으로 변함 없이 전승되어 내려갈 뿐이다. ⊕



일하는 방식, 공군이 앞장서 개선합니다.

편집실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발전가능성과 그 방향을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이다.

공군은 이미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전산화 및 각종 DB 구축, 멀티미디어 교육훈련체계 등을 통해 21세기 신국방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국방부가 선정한 공군의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를 소개한다.

전자우편체계를 통한 공무서신

현재 공군은 인터넷체계를 통해 각종 문서처리 및 업무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전자우편은 형식의 자유로움과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개인간 서신은 물론 일반 업무자료 유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자우편을 통한 유통자료는 공무상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해 불필요한 문서생산 및 신속한 자료전파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공군본부는 전자우편 서신을 4종(지휘참고보고/지휘자료전파/업무참고보고/업무자료전파)으로 구분, 직책·계급·성명·전화번호만 기입하면 문서나 보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개선함으로써 책임감있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증명서 발급 전산화/정기공수 탑승절차 전산화

그동안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신청에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발급부서로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수사령부는 인터넷

을 통한 증명서 발급체계 전산화로 이처럼 수기식 다단계 발급절차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 및 행정간소화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기공수 이용을 위한 탑승신청·인가·수속절차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전산화, 이용자 편의를 크게 높였다.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군수사령부는 부대 내 각종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용하고 있다. 정보화군, 기술군의 위상을 가지는 공군은 그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대량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공유지식 주제별 분류, 지식 동호인 모임, 지식MAP 및 업무자료 DB 구축 등을 통해 이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잦은 근무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및 업무수행상의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부서 전문업무에 대한 공유도 가능해 업무효율증대 및 경제적 군 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닭살 커플 다 모여라!

- 제30방공관제단 애인사진 콘테스트 -

제30방공관제단 중위 김 원 용



“과연 저 사진 속의 사람이 당신이란 말인가?” “아니, 저 여인이 당신의 애인이란 말인가?” 애인사진 콘테스트가 열린 제30방공관제단 종합교육장은 ‘현실과 이미지의 괴리’, ‘남과 여의 언밸런스’가 주는 충격과 의혹으로 술렁거렸다.

영내 사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병영생활 명랑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충격과 의혹의 주인공 28명이 일과 후 휴식 시간을 쪼개가며 작품을 제작, 공군인들의 애인 자랑에는 밀도 끝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특히 작품 중에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병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단본부 전산과에 근무하는 조준영 상병. 조상병은 25살 동갑내기인 자신의 약혼녀와 올해 결혼할 예정이어서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대상은 군생활 동안 받은 애인의 편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정현두 상병이 차지했다. 정상병의 작품은 한 부분은 자신이, 다른 한 부분은 정상병의 애인이 직접 제작하여 부대로 우송, 각별한 애인 사랑을 과시했다. 정상병은 “다른 작품들이 너무나 뛰어나 대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포상휴가 중 애인도 만나겠지만 부모님께도 효도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혀 더욱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

이제 공군에 오면 닭들도 하늘을 날 수 있다. 닭살커플들이 있는 한... Ⓡ

세계 챔피언에게 '불굴의 의지' 를 배운다

- 공군사관학교 챔피언 복싱교실 -



“쓰러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마! 다시 일어서!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야.”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사관학교 체육관은 무용관(武勇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학년 생도들의 팽팽한 긴장감과 거친 숨소리,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매서운 눈빛과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생도들에게 '포기하는 자에게 희망이란 없는 법'을 설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 WBA 주니어 페더급 세계 챔피언 홍수환씨.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생도들의 동계훈련에 홍수환씨를 특별 초빙하여 군인정신과 체력 증진을 위한 '권투교실'을 열고 생도들에게 불굴의 도전정신과 칠전팔기(七顛八起)의 강인한 정신력을 가르쳤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로 유명한 홍수환씨가 이번 공사 '권투교실'의 지도자로 초빙

된 이유는 그가 지난 1977년 당시 군인의 신분으로 파나마에서 열린 '헥토르 카라스키야'와의 WBA 주니어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4번이나 다운 당하고도 투지력과 인내력으로 다시 일어나 결국 챔피언에 등극한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

홍수환씨와 함께 한 이번 권투교실에서는 기본자세와 공격 및 방어법 등 권투의 기초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실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스파링을 실시, 생도들에게 세계 챔피언의 기량과 정신을 직접 전수했다.

홍수환씨는 타이틀전 당시를 회상하며 “나에게 빙그레 웃음 짓는 챔피언의 얼굴을 보며 저 사람만큼은 꼭 이기겠다고 투지를 불살랐습니다. 아마 그런 투지와 끈기는 군인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공사 생도들의 권투수업을 통해 권투의 기본기는 물론 불굴의 도전정신도 전수하겠다”며 수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권투교실에 참가한 김민지 생도는 “권투는 매우 격렬하면서도 섬세한 운동”이라고 평하고 “미래의 전투조종사에게 요구되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권투를 통해 키워나가겠다”며 권투교실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권투교실은 남녀 구분 없이 1학년 생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 IBF 미니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이경연씨도 함께 지도에 나서 생도들 사이에서는 '챔피언 권투교실'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THE BEST OF THE BEST!

공군 최우수 조종사 제16전투비행단 이용원 소령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발은 각 비행단에 근무하는 일선조종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평가방법 역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밀하다. 따라서 최우수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공군 조종사에게는 최고의 영예이다.

차세대 공중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군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매년 선발하는 '최우수 조종사'를 통해 얻고 있다. '2001년도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된 제16전투비행단 이용원 소령(주기종 F-5E)을 통해 21세기형 조종사의 면면을 살펴 보았다.

조종사 최고의 영예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발은 각 비행단에 근무하는 일선조종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평가방법 역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밀하다. 한해 동안의 비행경력, 비행훈련 및 근무기여도, 주요작전 참가 횟수, 비행안전 기여도 등 조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전문지식, 체력, 군인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포괄하는 총 11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최우수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공군 조종사에게는 최고의 영예이다.

'TOP GUN'이 매년 실시되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를 통해 조종사의 전투기량만을 평가하여 선발한다면 '최우수 조종사'는 전투조종사로서의 총체적 기량을 1년 동안 종합, 평가하여 선발한다.

따라서 최우수 조종사는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별 우수 조종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조종사로서 'THE BEST OF THE BEST'라고 할 수 있다.



사격술은 기본,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한다

이번에 최우수 조종사로 뽑힌 이소령은 지난 10여 년 간 2,120여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로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 7번 출전, 개인종합우수, 개인야간사격 최우수 등 4회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며 사격술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01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그가 속한 202대대가 종합우수대대로, 이소령 자신도 종합우수 조종사로 선정된 것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대대의 전통이 이 소령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대원을 하나로 단결시키며 이끌어온 대대장과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동료 대대원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하며 힘이 되어 준 아내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이 소령. “공군의 차기 전투기를 조종하며 아름다운 조국의 하늘을 초계비행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소령의 수상소감이 전투기의 굉음 속에서도 또렷이 들렸다. ㉠



Q & A

최우수 조종사는 어떻게 선발하나?

지난 1979년부터 실시되어 23번째 맞는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발제도는 한국 공군의 발전사와 그 맥을 같이하여 왔기에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명예이다. '최우수 조종사'라는 칭호를 얻기 위하여 공군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적응하고 복잡 다양한 공중환경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필승의 정신풍력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발은 공군의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공군 작전사령부 전투평가실 주관으로 한해 동안 조종사 개인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11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객관적이고도 엄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우수 조종사로 가는 관문은 좁고도 험하다. 특히

다음의 평가기준은 '최우수 조종사'를 가늠하는 결정적 준거가 된다.

- ▶ 특정 기량만 우수해서는 안된다.
- ▶ 개인 기량만 우수해서도 안된다.
- ▶ 이론과 실기,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서도 안된다.
- ▶ 높은 사명감이 최우수 조종사를 만든다.

이처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되는 '최우수 조종사'에게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선발된 최우수 사격 조종사를 뜻하는 'TOP GUN' 처럼 'BEST PILOT'이라는 영예로운 명칭이 부여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블랙 이글'에 반해서 공군이 됐어요

'블랙 이글' 인터넷 동호회장 출신 이 선 희 소위

공군 특수곡예비행대대 '블랙 이글'에 반한 사람들의 인터넷 모임인 '이글동'의 회장을 역임한 자칭 타칭 공군 매니아. 얼마전 제 107기 공군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한 이선희 소위의 민간인 시절 직함(?)이다.

1998년 서울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의 화려한 공중기동을 보고 한눈에 반한 이소위는 매년 2번씩 열리는 '블랙 이글' 팬클럽 초청 행사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청주 항공엑스포 당시에는 '블랙 이글' 부스에서 도우미를 자칭한 진정한 '블랙 이글' 매니아.

이소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블랙 이글'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좀더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글동'이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 사이버 세계에서도 '블랙 이글'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 헌병병과를 부여받은 이소위는 '블랙 이글'이 좋아서 공군에 들어왔다며 "만약 일찍 조종사의 길이 열려 있었다면 주저 없이 도전했을 것"이라고 말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공군은 하



나입니다. 기지경비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라는 이소위의 말에서 벌써부터 헌병소대장으로서의 다부진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오빠 같은 '블랙 이글' 조종사들로부터 임관 축하 꽃다발을 받고 "푸른 하늘에 태극무늬를 그리는 것이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이소위는, '블랙 이글'이 속한 비행단에 배속을 받아 2002년에 보여줄 새로운 공중기동들을 맘껏 보고 싶다는 부푼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

우리사랑 공군에서 꽃 피울래요

조문자 소위

"조문자 후보생, 목소리가 작다. 연병장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군가를 제창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흑독한 훈련지도로 유명한 정원교 중위는 유독 조후보생에게는 작은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얼핏 들으면 일상적인 교관과 후보생간의 대화처럼 들리지만 이 둘 사이의 대화에는 남들은 모르는 무언가 특별한 둘만의 눈빛과 여운이 담겨져 있었다. 그 이유는 조소위 입대 전, 둘은 이미 애인 사이로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사이였기 때문. 조소위는 지난 107기 사관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식에서 소위 계급장을 단 '새끼 보라매' 이고, 남자친구인 정중위는 104기 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한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교관이다.

조소위와 정중위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군'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소위는 지난 2000년, 공군 사상 첫 여자 사관후보생을 모

집하던 105기 사관후보생을 준비하면서 공군 여장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통해 정중위를 처음 알게 됐다.

선발시험을 준비하면서 정중위의 자상한 충고와 조언에 점차 마음이 끌렸다는 조소위는 정작 시험에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정중위와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 받던 중 107기 선발시험에 재도전하면서 각별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장교로 임관한 조소위지만 14주 동안 지속된 훈련기간 동안에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지척에 두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외면해야만 하는 아픔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게다가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서는 평소에 자상하기만 하던 정중위가 교관으로서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자 조소위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내 남자친구의 본모습이 바로 저것이였다니!' 하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소위는 "그래도 가끔씩 남들의 시선을 피해 보내는 따뜻한 눈길이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었다"며 오랜만에 정중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웃었다.

임관소감을 묻는 말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는 조소위는 "군생활의 선배이자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정중위와 좋은 만남을 계속 가지고 싶다"며 '공군'과 '정중위'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

정훈장교가 조중사를 만났을 때

김영실 소위

또한, 이번에 조소위와 함께 임관한 김영실 소위의 남자친구도 공군 최고의 전투조중사를 꿈꾸며 비행교육훈련에 입과 증인 신철소위로 밝혀져 주위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샘의 눈길을 한껏 받았다.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나 햇수로 벌써 6년째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영실, 신철 커플은 학창시절부터 항공대학교 ROTC로 전투조중사에 대한 꿈을 키우는 신소위의 모습에 반한 김소위가 공군에 몸담기로 결심하면서 공군 커플이 되었다.

공군장교가 되겠다고 처음 남자친구에게 밝혔을 때 "남자들도 받기 힘든 훈련을 여자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며 심한 반대를 했지만 김소위가 여장교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공군에 대한 굳은 믿음을 보여주자 신소위는 곧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임관의 기쁨보다는 지난 훈련의 아쉬움과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는 김소위는 "우선 장교다운 장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하고 "남자친구가 무사히 비행훈련을 마치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며 훈련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을 붉혔다.

군에서도 대학 때의 전공이었던 심리학을 살려보고 싶다는 김소위는 정훈병과를 받아 앞으로 공군 장병들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성실한 근무자세를 책임지고 다양한 공군의 활약상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공군지를 보내주세요!

월간 공군 독자 최 정 미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편지를 쓴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공군지를 받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작년 공군 사관후보생 107기 모집에 응시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지고 그 뜻을 접지 못해 110기 모집에 목숨을 걸고(?) 있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공군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두고 지방 일간신문에 취직해서 1년 동안 일하다가 검토 관련 잡지사에도 근무를 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접고 오로지 공군 사관후보생 준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공군지를 꾸준히 보면서 말입니다.

107기 면접 때 면접관님께서 물으시더군요. “자네는 왜 공군을 지원했나?” “월간 공군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정훈병과를 받아서 전공을 살리고 싶

지만 어디 세상일이 제 뜻대로 다 되던가요... 정훈병과가 아닌 다른 병과를 받더라도 다 같은 ‘공군’ 이기게 불평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공군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공군지를 받아보게 된다면 충실한 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비록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대학 4년 내내 신문·방송모니터를 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관후보생 110기 시험을 준비하는, 결코 녹록치 않을 그 시간들을 공군지와 함께 한다면 더 없이 기쁘겠습니다.

월간 공군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

도전하라! 나의 꿈을 향해

이대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1학년 윤혜영

사람은 언제부터 하늘을 날고 싶어 했을까? 그리스신화의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비상(飛上)의 꿈이 아닐까. 하늘에 대한 동경은 시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 같다.

얼마전 TV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남자 못지 않은 우수한 실력을 가진 여성 파일럿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너무나 부러워 가슴이 벅차 올랐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자만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서는 안되는 일, 이런 식으로 남녀의 차별이 있어 왔고 나 또한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고정관념을 깨야만 개인과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훈련을 거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힘들고 긴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어엿한 공군 조종사로 태어난 그들. 푸른 제복에 감추어진 고통의 시간들.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승자만의 당당한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그 모습은 나로 하여금 여태껏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늘로 눈을 돌리게 했다. 도전해 보고 싶은 또 하나의 꿈이 생긴 것이다. 그래,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



저 하늘이 나에게

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애자

나는 어렸을 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곤 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엄마는 내가 키가 클 꿈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꿈은 이미 어려서부터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닐까?

난 하늘을 무척 좋아한다. 해가 질 무렵의 붉은 노을 속의 하늘, 소나기가 그친 그 맑은 날 먼 곳에 피어나는 무지개, 밤 하늘에 쏟아질 듯 뿌려진 별들의 반짝임. 가을 하늘의 맑고 맑은 푸르름은 꼭 바다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 아름답기만 하다.

하지만 나는 하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공군사관학교에 여자도 입학할 수 있고 파일럿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늘을 맘껏 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 앞에 있는 것이다.

공군, 다시 생각해 보아도 멋진 이름이다. 자신의 손으로 조종하는 전투기를 타고 당당히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일 것이다. 부모님 또한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당신의 딸을 보며 얼마나 대견해 하실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는 나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 꼭 공군이 되어 날고 싶다. 저 하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

푸른 하늘 그 곳에

동명여고 2학년 김 수 진

푸른 하늘 그 곳에 내 꿈이 있네,
밤하늘에 부러진 별들을
동경하던 어느 날부터
나의 꿈은 하나, 둘 별이 되어 박히고
느림한 아름다운 제복에 나의 꿈 담으리,

지구의 어느 조그만 땅
호랑이를 닮았다는 이 민족에
세상사람 모두 아는 슬픈 사연 하나 있어
강도 막히고, 철길도 잘린
허리 아픈 호랑이의 슬픈 이 사연을
나, 오직 이 민족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늘길 환히 열어 보듬어 주리,

하늘에는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많은 꿈이 있고,
내가 지켜 내야 할 이 민족이 있고
어느 시인이 부르던 어머니도 있으니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나의 손으로 지켜 내리라,



공군사관학교 제10기 졸업 및 임관식(1962. 2. 23.)

벌써 40년이 지났다.
아니, 세월의 무게에 '벌써'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때와 지금을 하나로 잇는 것은
기억만이 아니다.

몸으로 느꼈던, 느껴야 했던
환희와 눈물, 긴장과 고통들이
우리와 함께
40년을 건너왔다.

땀으로 하나되고
명예와 금지로 기억되는
68명의 동기들

칼날처럼 줄 세운 예복의 긴장감
힘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던
임관선서의 그 순간.

서예에는 글씨보다 더 큰 뜻이

예술의 전당 서예관 지도교수 석현 임재우

鬱悒幾日向關東
 秋仍苦詩篇醉更雄
 高華嶽迴霜落漢江空
 獨倚高樓曉悠然意不窮
 風

東溟先生樓居詩
 志遠 鄒芳元

요즈음 우리의 생활공간에 한 점쯤 갖추어 놓으면 공간 분위기가 옛스럽고 한결 고상해지며 품위 있어지는 것이 바로 서예작품이다. 그러나 서예와 그림이 같이 전시되어 있다면 서예는 전성으로 보고 그림 쪽에 조예가 있는 양 깊어 있게 음미하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그림에 조예가 있다기 보다는 서예는 어떻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 회피'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에 더 갖게 되기 마련인데 모르는 것엔 관심이 없고 조금 아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서예가 한자로 된, 그것도 일상에서 보지 못한 난해한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서예와 동양화의 발생국인 중국에선 예나 지금이나 지성을 갖춘 사람일수록 먼저 서예를, 다음으로 묵화를, 그 후에 그림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다. 물론 지성이나 수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다만 문화의 변혁기에 단절된 전통과 예술정신의 해이에서 연유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붓글씨와 선생

붓글씨는 전통사회에서 선비나 군자는 물론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일부이자, 지적 척도였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모든 이가 형편이 허락하는 한 어려서부터 글을 익히는 동시에 붓글씨를 배웠다. 군자의 덕목이기도 하려니와 그 사람 심성을 보여주

唯
 獨
 音
 石
 軒
 山
 庚辰仲夏

山梅落盡野
 花飛谷口
 春殘客到稀
 遙望子峯
 紅梅裏杜鵑
 啼處一僧歸

庚辰仲夏錄釋海源先生詩昔齋尹漢南

는 창이라 여긴 것이다.

글자를 좁게 쓰는 이는 소견이 좁은 사람이며 넓고 품이 크면 너그러운 사람이며 각이 지고 거칠게 쓰면 성격이 모나고 급하며 골과 각이 없으면 우유부단하고 자기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로 붓글씨를 연마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먹이 갈리면서 비뚤어지면 마음이 비뚤어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고 새겨볼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글을 가르칠 때 성격이 거칠은 아이에겐 유연하고 부드러운 서체를, 소견이 좁은 아이에겐 넓고 포용력이 있는 서체를, 소극적이라 자기주장을 못하는 아이에겐 적극적이고 절도가 있는 서체를 지도하여 성

격을 개선하고 심성을 바르게 잡아주었다. 즉 서예를 통하는 것이 품성을 바르게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면 아이의 심성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생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무나 붓글씨만 잘 쓴다고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덕이 있으며, 생활이 모범적이며 판단의 혜안을 갖춘 이라야만이 진정한 선생인 것이다.

은은한 묵향으로 빛나는 서예의 가치

지금의 붓글씨는 생활의 필수적 부분도 아닐 뿐더러 과학문명의 발달로 컴퓨터 같은 기계문명이 삶의 여러 부분을 대신하는 현실에선 이제 골동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곤 한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로 기계문명이 발달할수록 앞서 말한 서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글씨에 담긴 문장의 교훈, 자연을 노래한 풍류와 멋, 들뜬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는 선생의 역할과 같은 한 폭의 작품.

구천구백 구십구품의 완성점 직전까지, 자신의 소질유무와 상관없이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서예이다. 다만 서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어, 특히 생활의 건전, 처신, 양심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용거용벽(用車用壁)의 교훈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 수 삼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조류에 어울리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이다. 따라서 흐르는 역사 속에 과학과 공학 기술을 담아 후손들에게 부강한 현재를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거북선과 같은 신무기를 우리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발명품으로 배운 바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회계급이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자리매김하여 기술자를 천대해온 사회적 배경이 오늘까지도 우리나라를 과학강국으로 만드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흔히들 말하곤 한다.

우리가 첨단기술, 세계적 기술을 말하게 된 것은 불과 20여 년이 채 안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IT, BT, NT, ET, ST 그리고 CT의 약자를 사용한 6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정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온갖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다(앞의 6T가 무엇인지 모르는 독자는 이번 기회에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도 세계 첨단기술의 도도한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간파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역사에서 지난 500여 년 간의 과학적 후진성이 국가 경쟁력을 잠먹고 급기야는 외세의 침략을 유발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한 근본 원인의 하나였음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있으나 쓰지 않음은 없음과 같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박제가(朴齊家)는 중국 북경을 방문하고 귀국 후 『북학의(北學義)』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용거용벽(用車用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은 운반수단과 벽돌을 사용

하여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

용거(用車)라 함은 운반수단을 혁신하기 위해 바퀴가 달린 말이 이끄는 마차(馬車)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 조선시대 운반수단은 보따리를 등에 지는 인력이 주축을 이루었고 농사짓는 소가 끄는 수레(牛車)가 이용되었다.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양은 극히 소량이고, 소는 농사짓는 것이 주기능인 동물로서 물건을 나르기에는 속도가 느렸다. 따라서 도(道)를 넘나드는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전라도의 쌀이 남아돌아도 강원도의 감자와 바퀴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장거리 운송수단은 해운이었으나 지금 살펴보면 변변한 항구시설이나 조선(造船)기술 등이 보이지 않음은 그 수준이 높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도로사정은 몹시 좋지 않아 도로폭도 좁았지만, 포장기술이 없어 사리도(砂利道 : 자갈길)나 흙길에 대부분으로 수레를 이끄는 데 매우 불편하고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노면파괴가 잦아 사용에 불편이 많았다.

벽돌 한 장의 힘

용벽(用壁)이라 함은 건물의 벽이나 울타리에 벽돌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벽돌로 지어진 시설이 산재하여 의아한 생각이 드나 역사적 유물을 살펴보면 벽돌로 된 시설이 거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시대 건물은 목조로 골조를 구성하고 벽체는 흙과 볏짚을 섞어 덧칠하듯이 발라 사용하였다. 특히 양반집 울타리나 각종 관청 건물의 울타리도 흙담에 기와나 볏짚을 덮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흙담이나 흙벽은 긴 장마와 겨울을 지내면서 흘러내리거나 동파하여 다음 가을철 또는 봄에 이를 보수해야 하는 일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

면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낮은 계급의 서민들을 부역하게 하였고 이들은 바쁜 농번기에 본업을 버려둔 채 양반집 수선에 부역을 나가야 하니 자연히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박제가는 중국에서 벽돌을 한번 쌓으면 수십, 수백년간 지탱한다는 말을 듣고 한양에 돌아와 이를 강조한 것이다.

과학으로 이어가는 역사의 흐름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의문이 썩튼다. 우리나라는 전래로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세계적인 수준의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자기 기술에 비하면 너무나 초보적인 벽돌 굽는 기술이 없어 벽돌집이 없었던 말인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벽돌이라는 내구성 건축자재를 조선 시대에서는 건물의 벽이나 울타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궁궐보다 높지 않는 집을 지었어야 한다던가, 목조위주의 건축양식에서 벽돌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등등의 의견들이 다수 있으나 완전히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국민의 원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조류에 어울리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이다. 역사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흐르는 강물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가누기가 무척 어려운 것처럼 우리 사회의 생존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과거를 연결시켜주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흐르는 역사 속에 과학과 공학, 기술을 담아 후손들에게 부강한 현재를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

외국 속의 사이버 한국인들

인터넷서퍼 이 수 영 sy_lee@cultizen.co.kr

외국 속의 한국인들은 모이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다. 유학이든 이민이든 한국을 떠났을 망정 이들은 여전히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서로 모이고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인터넷이 없었던 때에도 웬만큼 숫자가 모이면 한인회를 조직하고 소식지를 만들었다.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에 인터넷 교포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마다 학교마다 사이트가 있을 정도이다.

교포들이 미국과 일본에 몰려 있는 만큼 두 곳의 사이트 만들기가 활발하다. 이민자나 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친목성 사이트들도 있고, 한인회에서 소식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 개인이 취미로 만든 사이트, 종교 모임 사이트 등 성격은 다양하다.

우선 미국을 살펴보면, 미주 코리안 저널(usakj.com), LA의 코리아나 뉴스(koreananews.com) 등 한인 소식지가 있고, 교포들이 전하는 수많은 미국 뉴스 사이트가 있다. 특히 다음이나 프리챌 등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아줌마 in USA(freechal.com/missyusa) 같은 곳을 비롯해 다양하게 세분화된 각종 동호회들이 활발히 친목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koreanusa.org)라는 곳도 있는데, 미 대륙 전체에 걸쳐 있는 한인회 사이트들을 지도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다.

가장 많은 수의 재외 한국인 사이트가 있는 곳은 미국일까 일본일까. 검색엔진에 등록된 수만으로 본다면, 일본이 더 많다. 한인회나

교포 소식지(arirang-net.com) 같은 곳은 미국보다 적은 편이지만, 안티 사이트, 연구 사이트, 풍물기행 성격의 사이트 등이 무척 많아 서이다. 그런데 한국말로 되어 있어도 우리로서는 말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이트가 많다. 아무래도 일본어와 한국어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보니 일본식 한자를 섞어 쓰는 독특한 일본식 한국어가 쓰이기 때문.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까운 나라여서 그런지 한일 문화교류 사이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펜팔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게시판 을 통해 상대를 만나고 마음이 맞으면 이메일로 펜팔을 계속해 나가는 형식이다. KJ클럽(kjclub.com)의 펜팔 서비스 이용자는 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밖에도 태국(korean.or.th), 인도네시아(www.korean.cbn.net.id) 한인회를 찾아보면서 그들 나라의 도메인 끝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요즘 필리핀과의 국제 결혼이 성행인지, 이곳에도 펜팔 사이트가 있다(sinsu.com). 반면 요즘 경제 교류가 활발한 중국에는 경제 뉴스 사이트(it-chinanews.com 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인에게 한국이 외국일 수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유학생 사이트(koreanchinese.com)의 게시판에 들르면, 한국인이면서도 외국인인 중국 조선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데서 생기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불안 등이 비극이 되지 않고 적극적 생산력으로 이어지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

예측할 수 없는 라이브의 매력

서울시 교향악단 양 창 섭

“음반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브리지트 바르도 사진을 안고 침대에 드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은 지휘자 첼리비다케였다. 매번 다르게 연주될 수밖에 없는 음악을 평생 똑같은 음반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 고집불통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레코딩 자체를 기본전제로 하고 출발하게 마련인 대중 음악과는 다른 클래식만의 라이브 중심 발전사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레코딩의 매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손쉽게 어디서고 어느 때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작업에 들어가다?

레코딩 기술이 발전하면서 잘할 때까지 녹음하고, 잘한 부분만을 이어서 붙이는 ‘짜깁기’ 기술이 클래식 분야에도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게 되는 음반들은 대부분 이런 ‘공정’을 거치는 것이다. 첼리비다케의 원칙론과, 그 극단에서 있는 현실 사이에서 라이브 음반의 매력은 돌출된다. 음반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좀 덜 가공된 현장의 느낌을 느끼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는 타협이 아닐까? 기침 소리, 박수 소리, 간혹 들리는 연주자의 실수 등은 청자를 콘서트홀로 데려간다.

살아있는 명반들

명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한정된 레퍼토리만을 연주하기로 유명하다. 세계 최정

상의 지휘자이지만 정식으로 출시된 음반은 열 장 정도이니까. 그 중의 라이브 음반 한 장은 베토벤 교향곡 4번이다. 이 곡은 3번, 5번, 6번, 9번 등 제목 붙은 유명한 교향곡들에 눌러 별 인기가 없었던 작품이다. 하지만 클라이버의 레코딩은 이 곡을 명곡의 대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주특기인 현의 기민한 움직임, 변화무쌍한 템포 변화는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음반 내지에서 그는 “어떤 사소한 수정도 필요없다”고 단언한다. 그의 1989년 빈 필 신년음악회도 그에 못지 않다.

러시아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에프는 199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빈 필하모닉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을 지휘했다. 결과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났다. 자신의 구렛나루처럼 거친 게르기에프의 지휘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아함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지휘자에게 기민하게 반응하여 러시아의 대륙성을 표현해 내는 빈 필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요절한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의 브장송 페스티벌 라이브 음반은 가슴 아픈 기록이다. 쇼팽 왈츠들을 자기만의 순서로 연주했던 리파티는 건강의 악화로 전곡을 연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주 이후 얼마 안되어 그는 숨을 거두었다. 엄청나게 큰 손으로 건반을 휘저었지만, 그의 음악은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래 죽음을 예감한 자의 ‘애이불비(哀而不悲)’가 있다. Ⓣ



추락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 영화 '블랙 호크 다운' -

영화평론가 · 제15헌성비행단 중위 김지훈

최근 서구 영화평단에서 가장 활발히 벌어졌던 논쟁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어떤 영화가 세계를 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이다. 과연 영화는 영화보다 더욱 현실적인 사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재앙을 표현할 수 있을까?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영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대립과 같은 지정학적 정세를 어떻게 이야기와 화면으로 표현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영화는 잠시 동안의 충격과 무력함("영화는 현실을 재현할 수 없다")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양상의 테러리즘과 전쟁의 참화를 새로운 시청각적 경험으로 각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2차대전 당시 할리우드 영화가 선전(Propaganda)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처럼, WTC(World Trade Center) 테러 이후의 미국 영화가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집단적 심리를 통일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정당화하는데 복무할 것이다.

9.11 이후 영화의 좌표

〈블랙 호크 다운〉은 이 두 가지 전망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영화다. 최근 〈에네미 라인즈〉, 〈콜래터럴 데미지〉 등 테러리즘/전쟁 관련 영화들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블랙 호크 다운〉은 주력부대에 맞먹는 장대한 면모로 등장을 알렸다. 가장 최근의 〈진주만〉을 비롯해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블록버스터 제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리 브룩하이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 등 스펙터클한 연출의 대가 리들리 스코트의 동맹은 영화의 내공을 탄탄하게 증강시키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뜻밖에도 영화는 진주만과 같은 사상 초유의 대공습이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월남전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대형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다. 미국이 자랑하는 공격형 헬기 '블랙 호크'가 추락한 지점은 뜻밖에도 1993년 부족간의 내전과 인종 대학살, 기아로 오염된 소말리아의 도시 한복판이다.

전쟁의 스펙터클을 정당화하는 전우애

로마의 콜로세움과 21세기의 가상 LA 등 광활한 화면을 표현했던 리들리 스코트는 이번엔 국지전과 시가전의 한가운데로 뛰어든다. 그 결과는 좁은 공간에서의 숨막히는 충격과 살인장면을 역동적으로 재현한 탁월한 화면전개다. 리들리 스코트는 미로와 포연(砲煙)으로 뒤덮인 도시를 아비규환으로 표현한다. 그러기 위해 카메라는 최대한 총기에 가까이 다가가 총을 쏘는 자와 공격당하는 자의 시선에 밀착한다. 보는 것이 곧 전쟁의 경험을 대리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룻밤을 꼬박 새운 이 시가전을 2시간 이상 관람하고 난 뒤 얻는 교훈은 이 전쟁의 정당성이 '전우애'라는 것이다. 스펙터클의 향연 뒤에 남은 전우애는 〈진주만〉이 선전했던 '애국심'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던가? Ⓛ

德不孤 必有隣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논어(論語) 이인(里仁)편에 보면
요즈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적인 말씀이 실려
있다.

공자께서는 “덕(德)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라 必有隣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언뜻 듣기에 일상적인 말
씀 같지만 너무나도 의미있고 공감이가는
말씀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유유상종
(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곧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는 뜻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같은 무리끼리 어울려 살아가기 마련이다. 진
실하고 선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
심으로 자연스럽게 선량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며, 나쁜 마음을 먹고 그릇된 행
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똑같은 무리
의 사람들이 어울려 패거리로 이루어진다.

사람에게 덕이 있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
게 향기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한
덕의 그윽한 향기는 자연과 더불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
나간다. 자신만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까
지도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게
되면 벌이 꽃의 향기를 찾아 날아들 듯이 맑
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물됨을 알아보
려면 그 사람이 어울리는 무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 홀로 고결하게 마음을 지키고, 심오
한 학문을 터득하여 깊은 철학적 사색에 빠
져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성취하였다 할 수는 있
어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고 오히
려 독선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많
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덕이란 향기와 같아서 선량한 마음을 지니
고 그 향기로운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
을 향기에 흠뻑 적셔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맑은 물을 끊임없이 제공
해 주는 우물과 같아서 덕의 향기에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다. 마음의
샘물에서 아무리 퍼 주고 또 퍼 주어도 모자
람이 없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것이다.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공
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나 좋은 직장을 가
졌다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알며, 주위의 많은 사람
들에게 덕의 그윽한 향기를 전해 주는 사람
이라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일까? 그
래서 공자께서는 덕을 베풀며 살라고 강조하
신 것이다.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寬則得衆).”

아버지와 딸

방송작가 김 은 희

지난 여름 늦은 밤, 12시 혹은 새벽 한두 시쯤, 아마도 딴 생각에 잠긴 채 터벅터벅 골목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을 거다.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하나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쌩아아~ 쌩아아~' 하는 물소리. 거기에 간간히 간드러지는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집에선가 아이들이 열대야의 더위를 식히고 있는 걸까. 그러나 대부분의 창들엔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그리고 소리는 아주 가까운 어느 곳에서 들리고 있었다. 소리의 흐름을 따라 두리번 거리다가 발견한, 골목길 담벼락에 서있는 트럭 한 대. 설마 저 속에서 나오는 소리?

두어 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트럭과 결의 담벼락 사이, 한두 사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정도의 공간엔 포장마차에서나 볼 수 있을직한 주황색 차양이 둘러쳐져 있고, 그 속에선 포장마차의 그것 마냥 백열등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에 따라 어른거리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물소리와 웃음소리는 분명 그곳에서 나오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주제넘은 호기심이었을까. 도둑 마냥 살금살금 다가가 살짝 차양을 들춰보았다. 그곳에선 벌거벗은 어린 딸을 고무대야 속에 세워 놓고 아버지가 호스의 물로 샤워를 시켜주는 중이었다. 장난스레 간지럼을 태우는 아버지와 숨넘어갈 듯 웃어대는 어린 딸. 이게 웬

달밤의 체조인가.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나는 그만 정신이 멍해지고 말았다. 도무지 눈앞의 풍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보니 그 트럭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젯밤에 내가 본 풍경은, 그렇다면 꿈이었을까. 내가 너무 피곤에 절어 헛것이라도 본 것인가. 그러나 그날 밤 같은 자리에 어김없이 트럭은 세워져 있었다. 불이 꺼져 있긴 했지만 주황색 차양도 그대로였다. 뭐하는 트럭일까. 잠시 조용한 트럭의 포장 앞에서 서성여 보았으나 그것까지 들춰볼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골목길의 작은 트럭은 나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출근길엔 어김없이 텅 빈 공간을 살피며 걷고, 퇴근길엔 어른거리는 그림자의 웃음소리를 듣거나 쥐죽은 듯 고요히 남겨진 트럭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나는 그 어린 딸을 보게 되었다.

퇴근길에 늘 들르곤 하던 작은 구멍가게. 그 날, 내가 막 들어서려던 찰나 작은 여자가 이가 머리채를 달랑거리며 뛰어나오는 중이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친 뒤 가볍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예닐곱살 쯤이나 될까. 한눈에 보기에 도 구김 없이 밝고 귀여운 얼굴이었다. 뛰어가는 아이의 양손에선 킥라면 두 개가 팔짓에 따라 달랑거렸다.

잠시 아이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들어서니, 주인아주머니 역시 유리 너머 그쪽
을 바라보는 중이었던 모양이었다.

“집도 없이 트럭 타고 떠돌아 댕겨도 아주
당차고 명랑하네.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한 것
같는다. 어린 것이 여간 효녀가 아니여.”

다음 순간, 나는 가게문을 박차고 나와 뛰
기 시작했다. 아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
았다. 예의 골목 쪽으로 방향을 잡고 뛰었다.
막 커브를 도는 순간, 그 아이가 트럭의 포
장을 들추고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
닌가.

그 트럭엔 아버지와 딸이 산다.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트럭이 그 부녀의 ‘집’ 이
라는 걸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트럭은 그
부녀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 트럭은 그 부녀에게 집이자 직
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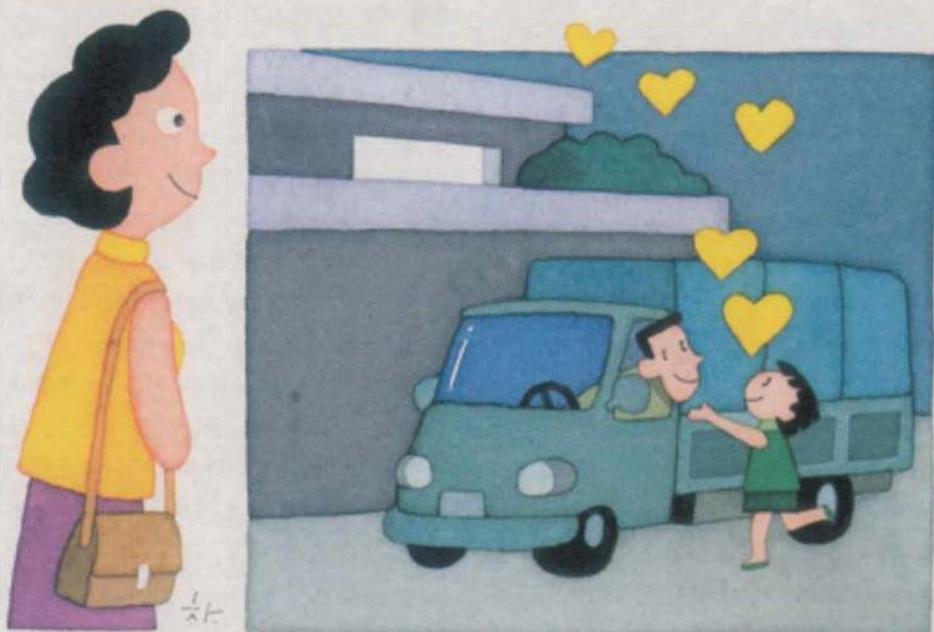
나는 그들이 왜 트럭을 타고 떠도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사연을 알지 못한다. 다만 그 트
럭 속엔 몇 가지 야채와 함께 간단한 가재도
구가 함께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본 적이 없
다. 다만 그의 한쪽 다리가 의족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을 뿐(그런데 운전은 어떻게 하
는 걸까).

낮엔 동네방네 다니며 야채를 팔고, 밤엔
이곳으로 돌아와 잠이 드는 부녀. 밤마다 어
린 딸아이의 몸을 씻겨주는 아버지와, 아버지
와 함께 야채를 팔고 아버지를 위해 밤늦은
심부름을 하는 어린 아이. 이 이야기는 동네
에서도 두고두고 애깃거리가 되었다. 가끔은
담 너머로 기꺼이 수도 호스를 내어준 집주
인에 대한 칭찬도 오고 갔다.

지금은 더 이상 그 트럭을 볼 수가 없다.
트럭이 있던 자리에 낫선 승용차가 들어선
며칠 후, 나는 겨울로 들어서면서 그들이 다
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돌아오는 봄, 다시 아버지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이도 조금은 더 키가
자라있겠지. 어쩌면 조금 더 근사한 트럭으로
의기양양하게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
나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겨울, 어디에선가 누추한 골목 대신 따듯
한 아랫목을 찾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성인(成人)’ 셜록 홈즈의 재발견

『셜록 홈즈 전집』(아서 코난 도일 지음/민음사/2002)

KBS 사회부 기자 이진성

우리나라에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을 대상으로 씌여진 외국 문학작품들이 번역돼 들어오면서 청소년물로 둔갑한 것들이 꽤 된다. 예컨대 『걸리버 여행기』나 『로빈슨 크루소』,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책들은 ‘소년 소녀 세계명작’ 등과 같은 전집류 속에 한 권으로 포함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널리 읽혀지다가 그 청소년 독자들이 어른이 될 즈음 ‘완역판’이나 ‘무삭제 번역’ 등의 이름표를 달고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번역돼 왔다. 추리소설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코난 도일의 작품들 또한 지난 2월 초 『셜록 홈즈 전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됨으로써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보였다.

완역으로 다시 돌아온 그대

‘셜록 홈즈’는 명탐정의 대명사로 추앙받는 인물. 일반 독자들에게는 모리스 르블랑이 창조한 전설적인 괴도 ‘아르센 루팡’과 맞수로 기억되고 있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홈즈가 살았다고 그려진 런던의 베이커 거리 221B번지엔 홈즈를 실존인물로 착각한 사람들이 여전히 의뢰 편지를 보내올 정도라고 한다.

사실 이 정도 가십 수준의 이야기는 지난 1980년대 중반, 붓물처럼 쏟아진 추리소설 시리즈에 빠져본 적이 있는 독자들에게는 상식으로 기억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일본어판을 중역해 펴낸 도일의 추리소설들을 읽으며 홈즈

와 엘러리 퀸, 에콜 포와로와 같은 세기의 탐정들의 활약상을 지켜본 당시 청소년 독자들에게 어찌면 이 전집은 큰 재미를 안겨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중앙일간지의 한 서평자는 이 책이 출간됨으로 해서 이전에 청소년물로 출간된 다이제스트판에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엿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건 당시 출간된 책들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 예컨대, 홈즈의 조수로 나오는 와트슨 박사가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다 상처를 입고 영국에 와 홈즈를 만났다는가, 홈즈가 코카인을 즐겨 피웠다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추리소설에선 결가지 이야기들이라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읽거나 혹은 기억하기

오히려 이 책의 출간이 의미가 있다면 당시의 독자들이 나이가 들어 다시 홈즈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 또래에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내면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독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허구 속 인물 또한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모습을 바꿔 독자와 조우하기에,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천재적인 명탐정 홈즈가 아니라 독신의, 편집광적인 성격으로 똥똥 뭉친 외로운 중년 홈즈를 발견했다.Ⓛ

만물이 약동하는 3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엄영경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새악시 불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 실 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겨울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는 동장군의 마지막 시샘인 꽃샘추위를 이겨내면, 얼어붙은 땅을 밀치고 솟아오를 그것은 바로 희망찬 새봄이다.

3월,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바뀌고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습윤한 저기압의 통과가 빈번해진다.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점차 올라가면서 봄이 우리 곁에 온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 찾아오기도 한다. 강수량은 평균 58mm로 조금씩 늘어나지만 강설량은 3cm 줄어들어 3월말부터는 북부산악을 제외하고는 눈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여 긴장은 완화되고 날씨는 급격하게 변하며, 안개발생 또한 증가하게 되어 지상 및 항공작전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나오고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도 생육(生育)을 개시한다는 경칩(驚蟄)이 6일이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만물이 약동하기 시작한다는 춘분(春分)이 21일이다.

추운 북쪽지방에서도 ‘추위는 춘분까지’라고 할 정도로 춘분이 되면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이다. 춘분에서부터 약 20여 일이 일년 중 가장 기온상승이 큰 때이다. 이때는 습지도 덥지도 않은 난춘(暖春) 시기로 일년 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따라서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고 하루가 다르게 봄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쯤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사이로 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양지바른 곳의 따뜻한 햇살이 겨울 내내 움츠렸던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해 주기도 한다. 희망의 봄을 맞이하여 어린 꼬마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설레는 마음과 같이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봄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는지?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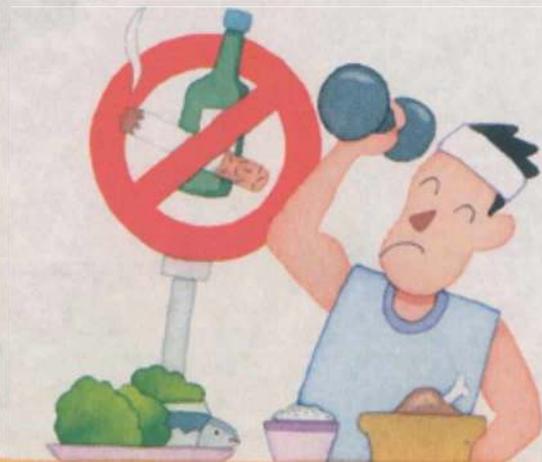
제3방공포병여단 제8987부대 대위 **홍 승 권**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음식으로 건강해 지려 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만큼 섭생을 제일의 건강관리법으로 생각하는 민족은 많지 않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잘못된 음식'에서 찾아 왔고, 질병이 생기면 가릴 음식부터 묻는다. 건강보조식품의 소비가 증가 일로에 있고 몸에 좋다면 거의 무엇이든지 먹는다(그 대표적인 예가 녹용, 웅담 등이며 세계소비량의 80~90%가 한국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거의 독점하는 국민이 평균수명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는 수많은 나라에 뒤지고 있다면 아이러니가 아닐까.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암이 가장 많고 이어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 사망원인들은 식생활이나 스트레스 관리, 운동,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과 질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건강할 때와 질병에 걸릴 때가 따로 있으며, 이 두 경우는 공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상태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만약 폐렴에 걸린 상태라면 병에 걸린 것이고, 폐렴을 치료했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과 질병을 완전히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폐렴이 나왔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폐렴에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비록 폐렴은 나았을지라도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질병과 건강은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건학자들은 질병과 건강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

병이 생기기 전 단계인 건강위험요인을 제거하면 병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병의 발견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을 개선해서 병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식(小食), 다동(多動), 금연(禁煙), 절주(節酒). 이 평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건강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다. 건강한 식습관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침을 꼭 챙기고 육류, 어패류, 곡류, 채소, 과일 등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된다. 여기서 가급적 매끼 20분 이상 천천히 먹고, 소금과 지방질 섭취를 조금 줄이는 정도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현역군인에 대한 민사소송

공군본부 법무감실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송달되었는데 군인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요?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가야 할까요?

군인도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자백 등에 의하여 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변호사 소송을 의뢰하여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그 관계를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 ④



민사소송

현역군인 소송

육군 중장 김백일(金白一)



1971년 북간도 연길현 출생. 김백일 중장은 1946년 국군 중위로 임관, 3연대장, 육사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0년 육본 행정 참모부장을 역임하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제중인 작전참모부장을 겸임하고 초기전투의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1군단을 이끌고 북진의 기틀을 다졌다. 흥남철수 때에는 10만여명의 민간인을 군선박을 이용, 해상철수시키기도 하였다. 김백일 소장은 1951년 중공군의 4월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미8군이 개최한 군단장회의에 참석하고 복귀하던 중 악천후로 인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 사후 태극 무공훈장과 함께 중장으로 추서되었다.

이상재(李商在)



1850년 충남 서산 출생. 호 월남(月南). 본명 계호(季皓). 목은 이색의 16대 손으로 1881년 박정양이 이끄는 신사유람단원으로 일본에 간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다. 개화독립운동에 앞장서 1897년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토론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 주권사수를 외쳤다.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 들어가 젊은이들에게 민족애와 신앙심을 심어 주는 한편, 전통적인 사민(四民)사상을 혁신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근대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특히 민족을 앞날을 위하여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좌우일치의 신간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피선되었으나 한달 후인 1927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필주(李弼柱)



1869년 경기 고양 출생. 20세 때 구(舊)한국군에 들어가 8년간 장교로 근무하였고 1907년 한일신협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상동청년회에 가입, 기독교인이 되었다. 상동 공옥소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미신타파, 계급차별 배격, 자립정신 고취 등을 표방하고 신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활동을 하면서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 2년간 옥고를 치렀다. 말년에는 수원 남양교회에서 교역에 종사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일제에 항거하다가 1942년 병사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

창공의 교통경찰 항공교통관제사

공군본부 공보과



출퇴근 도심의 교통혼잡은 단지 몇 시간의 지루함만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넓디 넓은 하늘에도 교통경찰이 필요할까? 물론이다. 항공기의 이착륙경로와 착륙순서가 서로 뒤엉킨 상황을 상상해 보라.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상에서 항공기 이착륙경로와 착륙순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은 하루 24시간 하늘을 보고 산다.

안전, 질서, 신속의 3대 원칙

항공교통관제사들은 안전, 질서, 신속의 원칙하에 전투조종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공중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활주로에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비행을 돕는 창공의 교통경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 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공항관제, 이륙관제, 접근관제, 착륙관제, 최종관제의 5가지 과정을 완벽하게 거쳐야 한다. 이러한 5가지 임무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임무는 착륙경로에서 비행중인 항공기를 식별·포착, 항공기에 접근순서를 결정하여 착륙관제사에게 인계하는 접근관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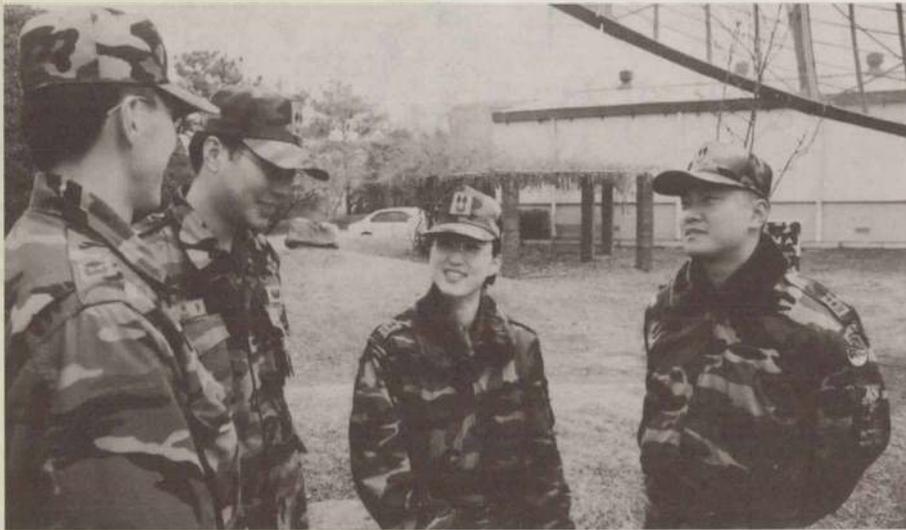
접근관제 임무 수행 중에는 때때로 무장을 장착한 채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이 갑작스런 기상이상으로 비상착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관제사들은 장거리 항법 시설(TACAN), 계기착륙장치(ILS), 정밀접

근레이더(PAR)와 같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위협에 빠진 전투기의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게 된다.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임무는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정예 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항공관제사가 되려면 병사는 5주, 부사관은 17주, 장교는 10주 동안 항공관제에 대한 일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작전부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제 작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전부대에서 Tower 관제사는 5개월, Rapcon 관제사의 경우 12개월에 걸쳐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항공교통관제사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있기에 하늘은 안전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공의 교통경찰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교통관제사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 3개조가 12시간씩 일일 2교대로 일하는 근무여건상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갖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30년간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19전투비행단 정성수 준위는 "전투기의 비상착륙을 유도할 때가 가장 힘들지만, 막상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한다. "전투 조종사가 안전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그의 말속에 수많은 다른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



시작은 누구에게나 ‘처음’ 으로 다가온다

제30방공관제단 31전대 중위 정 현 숙

“이 상황이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다면 넌 항공기 여러 대를 충돌시킨 셈이야! 똑바로 못하겠어?”

교관의 고함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새삼스럽게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된다. 아마도 새로 들어온 후배들의 모습에서 지난 날의 나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둘러 상변 준비를 마치고 MCRC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떠날 줄을 모른다. ‘내가 방공무기통제사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처음에는 모든 용어나 내용이 생소해서 힘들었는데 벌써 후배장교를 맞이하게 되다니.’

방공무기통제사는 말 그대로 방공무기, 즉 영공을 지키는데 필요한 갖가지 무기를 통제하는 사람이다. 각종 무기를 장착한 전투기 및 지상방공포를 투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

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20주간의 교육은 혹독할 수밖에 없고, 끝없는 긴장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러한 교육을 거친 덕분에 지금은 당당히 방공무기 통제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도 배울게 너무나 많고 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방공무기통제사, 그 1년의 기억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벌써 MCRC 도착. 먼저 브리핑실에서 담당장교가 전체 요원들에게 오늘 임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한다. 주요임무를 체크하고 전국의 기상상태, 특히 전국 사이트의 레이더 정비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한 후, 상부 지시사항까지 숙지한 뒤 바로 작전실로 들어간다. 심호흡 크게 한번. 6시간 동안 임무에 집중하느라 피로해진 얼굴로 콘솔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변조가

눈에 들어온다. 임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고 나 역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임무에 임한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공들여 준비한 방공훈련을 하는 날이다. 미리 세워둔 도상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각 비행단에 출동대기 지시를 하고, 이어서 전투기들을 이륙시켜 가상적기에 대한 요격훈련에 들어갔다.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각종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사와의 라디오 교신이 끊기는 게 아닌가! 어젯밤 교관에게 지적 받던 꿈이 떠오른다. 하지만 나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혹독한 교육을 시켜준 교관에게 감사하며, 비상주 파수로 재빨리 교신을 시도하였다. 일순간의 적막을 깨고 조종사의 음성이 다시 들렸고, 오늘의 방공훈련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하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들어보니 선배장교, 동기들 모두 각자의 임무에 바쁘다. 잠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흔히들 군대는 딱딱하고 명령만이 존재하

는 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가 체험한 군대, 특히 공군은 개인의 창의력과 융통성을 겸비한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조직이다. 더구나 한사람, 한사람의 임무가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막중한 것이기에 책임감 역시 너와 내가 다를 수 없다. 팀워크와 책임감을 양쪽 어깨로 짊어지는 이들은 군생

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구성원이 되리라 확신한다.

'처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버리다

어느 새 6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한번시간이 다가왔다. 가벼운 마음으로 선배, 동기들과 조촐하게 삼겹살이라도 먹기로 하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데 젊은이의 장난기가 발동한다. 맞은 편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몇 명의 아가씨들을 보더니, "미확인 항공기 발견, 오른쪽 2시 방향." 옆에 있던 한 선배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다. "수송기. 수송기"(수송기는 전투기보다 훨씬 크다) 그 말에 나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약간 통통한 아가씨들이다.

중위 계급장을 단 지금, 이제는 뭔가 더 큰 도약과 내실있는 성장을 할 때라는 것을 자주 느낀다. 그동안 공군 내의 첫 여군, 첫 여성 방공무기통제사라는 타이틀 아래, 주변의 시선과 관심도 많이 받았다. 신기함과 조심스러움으로 점철되던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는 두터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이 공군내 여군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고 아무리 추위도 군복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없게 만든다.

'처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만 많은 개혁의 여지를 가지기에 더욱 매력적인 것 같다. '처음'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첫 여군'이라는 타이틀을 조용히 내려놓고 후배를 챙겨주는 선배장교, 든든한 동료, 신뢰를 주는 부하가 되어 내 자리에 다시 서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작전실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체력단련을 위한 구보는 오늘밤에도 계속될 것이다. Ⓛ



봄 향기로 가득한 나의 군생활

제18전투비행단 병장 여성 호

지난 2000년, 새로운 천년의 향기가 세상에 만발하고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피며 활동을 예감하던 어느 봄날. 봄꽃들이 전해오는 향기를 맛보는 것도 잠시,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공군 교육사령부로 첫발을 내디뎠다.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 군인으로서의 여유가 묻어 나오는 이 시기에 난 또 하나의 새로운 봄맞이로 바쁘다. “필승! 신고합니다. 상병 여성호는... 병장으로 진급을 명 받았습시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공군 병장으로 당당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후임병들의 부러워하는 눈길을 받으며 새로운 계급장에 바느질을 하는 나.

누구나 군에 입대하면 자연스럽게 계급이 올라가 병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진급이 주는 의미는 주어진 위치에 조금 더 노력하여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해냄은 물론 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질책으로 여겨진다.



봄의 따사로운 햇살과 꽃내음 향기가 무르익을 때쯤 시작했던 나의 군생활은 어느덧 중간지점을 돌아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진급의 기쁨으로 한층 더 자부심을 느끼며 무거운 어깨를 뽐내던 이 봄이 가면 내년에는 전역을 알리는 봄소식이 온다. 언제나 좋은 소식만 전해 오는 봄! 내년 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겨우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다. ☘

봄이라는 씨앗을 뿌리며...

제20전투비행단 상병 김 상 희

새해가 시작되니 벌써 두 달이 지나, 계절은 봄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 하고 있다. ‘봄’ 하면 제일 먼저 생명이라는 단어가 연상된다. 봄은 겨울 내내 스산했던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한다. 세상만물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풀이 돋아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초록의 물결이 넘친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몸이 지칠 때 가끔은 봄햇살을 받으며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땅을 걸어보고, 봄내음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새해 첫날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희망찬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두달

여가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포기했거나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군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나름의 설계도에도 어딘가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지 모른다.

군복무 기간동안 공부, 금연, 운동의 세 가지 목표를 새해 계획으로 잡아놓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자의 근무지에서 바쁘게 일하며 시간을 쪼개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군인으로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2002년 봄,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추스르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봄은 사계절의 시작이고, 실질적인 한해 업무의 출발점이므로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가짐으로 군복무에 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농부가 되어 보자. 농부가 되어 봄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땀과 노력이라는 양분을 주며 정성을 다해서 키워보자. 그 씨앗이 자라 싹이 트고, 줄기와 잎이 되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형이라 부르고 싶은 박병장님

제11전투비행단 병장 배 은 석

기본군사훈련단에서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오게 된 이곳 11전투비행단. 행정병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된 곳에는 두 명의 간부와 제대를 석 달 앞둔 까마득한 고참인 박병장이 있었다. 그 날 저녁 박병장은 곳곳에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후임이라고 얼굴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자랑했다. 나는 속으로 '이제 날 막 부러먹으려는 생각에 저러는구나' 싶어 두렵기도 하고 알뜰기도 했다.

하지만 박병장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일도 꼼꼼히 잘 가르쳐주고 같이 있는 석 달 동안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나를 도와주었다. 한 달은 시범을 보여주고 다음 달은 같이 하고, 마지막 한 달은 뒤에서 지켜봐 주는 꽤 긴 시간 동안 말이다. 가장 놀란 사실은 내가 오기 오래 전부터 업무숙달에 대한 방법을 대화체로 상세히 적어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 책은 내가 병장이 된 지금에도 업무수행의 참고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잘못한 일에는 눈물이 절끔 나올 정도로 따끔하게 야단치기도 했던 박병장이 제대한 지도 벌써 1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곳에는 워낙 박병장의 손길이 많이 남아 있어 그의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요즘엔 나도 긴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후임병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병장 계급장을 단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후임병을 향한 내 마음은 벌써부터 박병장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날 받은 사랑에 그리움이 더해지는 박준범 병장님. 이제 만나면 꼭 형이라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박병장님의 충고 잘 새겨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워드 1급 자격증도 땀습니다.”Ⓛ



대한항공 월드컵 특별 홍보항공기 운항

월드컵 홍보항공기는 2002 FIFA 월드컵 공식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월드컵을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B747-400기 2대, B777기 1대 등 총 5대의 항공기 외부에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 대표팀 선수가 오버헤드릭을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 넣은 것. 이들 항공기는 지난달부터 정기편 운항에 투입돼 전세계를 다니며 월드컵 홍보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인천·김포국제공항과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20대에도 월드컵 홍보 그래픽 도안을 넣어 하늘과 땅에서 월드컵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1주년 사진 공모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3월 29일 개항 1주년을 기념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소재로 한 사진을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1(월)부터 16일(토)까지이며 1인당 10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직접 방문, 등기우편 모두 가능하며 심사발표는 3월 23일(토) 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or.kr) 게재 및 개별통지된다. 상금은 대상 1명에 300만원, 금상 3명에게 각 200만원, 은상 5명에게 각 100만원, 동상 10명에 각 50만원, 장려상 30명에 각 15만원씩이다. 입상작 전시는 3월 30일(토)부터 4월 7일(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다.

문의) 032-741-2113

아시아나항공 사랑의 기내 동전모금 20억 돌파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등 전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나항공의 사랑의 동전모금 결과 모금액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8년째 펼쳐온 '사랑의 기내 동전모으기 운동'에 전세계 60여만명의 승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까지 23개국 28종의 화폐로 20여억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4년 2월부터 해외에서 쓰고 남은 동전이 국내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고 불우한 생명을 살린다는 취지 아래 모금운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 총 모금액에서는 영국항공이 1,500만달러(추정)로 1위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모금액 목표를 5억원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튜어디스, 용모보다 체력

9. 11 테러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체력검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승무원 채용기준을 바꾸기로 해 시선을 끌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승객들의 구조의무를 지고 있는 승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체력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항공기가 바다에 비상착륙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수영실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역시 올해부터 기준에 손질을 가한다. 지성과 인성은 물론이고 강한 체력도 중요한 채용 포인트로 볼 계획이다. Ⓢ



보훈문예물 현상 공모

국가보훈처는 2002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호국문예작품을 공모합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표어, 시, 수필을,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참전수기를 공모하는 이번 행사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효)6239, 02)506-6239

월간 공군 통권표기 발행

월간 공군이 이번 호부터 통권으로 표기, 발행됩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군의 대표적인 교양매체로 사랑 받아온 월간 공군은 통권 285호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쌓아온 전통과 연륜을 통권표기에 담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서고자 합니다. 월간 발행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참신한 내용과 산뜻한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효)6234, 02)506-6234

군사자료 인트라넷 검색체계 구축

공군본부 군사연구실은 창군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공군의 주요 역사 존안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개발하여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특히 공군의 주요정책, 제도, 통계, 편제와 전쟁 및 군 관련 도서, 정기 간행물, 주요행사, 항공기 사진 등 문서, 도서, 사진류를 망라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공군본부 인트라넷→종합정보체계→군역사 관리→군사자료검색, ▲예하부대 인트라넷→분야별 업무정보→군역사 관리→군사자료검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 효)3284

화학지 원고모집

미래 화생방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담은 『화학』지가 제7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내용은 교리 및 무기체계, 각종 장비 개발·개선사례, 화생방 전사(戰史) 등이며 기간은 오는 9월까지입니다.

문의 : 효)3383, 042)552-3385

퀴즈로! 퍼즐로!

①②③④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3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천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달의 문제

1		2			3 ②	4		5
		6 ①	7					
					8			
							9	
10	11			12		13		
14								15
		④		16		17 ③		
			18					
							19	
20			21					22

지난호 정답/사설시조

	시③	월				연	설②		
		드	라	마		풍		택	
중	이	첩				연		사	
	중			아	프	가	니	스	탄
	범		부		로				저
			두	산		그	롭		세
			사			램			런
청	마	부	대						미
			일		전	문	가		
			체	조④			사①	령	관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330-8 황 준
전북 정읍시 북면 북흥리 탐성 301 문인규
계룡대 근무지원단 수송대대 4중대 유영호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4919-7 신승남
서울 마포구 구수동 68-8 진영빌딩 가람기획 이돌숙

가로열쇠

1. 지구에 살면 지구인. 우주에 살면 ○○○
3.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
6. 닭에 인삼, 찹쌀, 대추 따위를 넣고 푹 곤 음식
8. 노란색 꽃. 봄에 주로 볼 수 있죠. 나리~ 나리~ ○○○
9. 붓을 꺾음. 고뇌에 찬 문필가들이 세상과의 불화로 ○○선언을 하곤 하지요.
10. 오래되고 희귀한 세간이나 미술품. 가짜로 판명되면 썩스럽습니다.
12. 어떤 것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일
↔ 평가절상
14. 태양계의 다섯째 행성. 가장 큰 행성이지요.
17. 문제가 어렵다굽쇼? 거저 주는 문제. '운수'가 '대통'한 것
18. 공통점을 찾아라. 大道無門, 워터○○○, 골든 ○○○
20. 사과, 배, 감 등등. 토마토는 ○○ or 채소?
21.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배경이 된 곳.
이영애 밖에 기억이 안난다구요?
22. 우리 나라의 광역시.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

세로열쇠

1. 서유기에서 화초선을 사용하는 요괴. 드래곤볼 에도 나와요.
2. 상도의 임상옥은 말합니다. 이것의 교역권을 가진 상단이 조선 제일의 상단이 된다!
4. 멀고 긴 거리. 단거리 반대말
5. 짧게 닳아서 거의 쓰지 못하게 된 연필
7. 북한 여자 유도계의 대표선수
10. 동네 가운데의 좁은 길. ○○길 접어들 때에 ~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
11. 성도 같고 본관도 같음
13. 트랜스젠더하면 이 사람
15. 왜 나를 보고 ○○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거지? 왜? 전기○○
16.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18. bulletin board
19. 봄 - 여름 - 가을 - ○○

제24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국내 최대 항공축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선대회

- 일 자 : 2002년 5월 19일(일)
* 예비일 : 5월 26일(일)
- 장 소 : 공군사관학교 043) 290-6271, 2
- 주 최 : 공군본부 02) 506-6232, 042) 552-6232

참가신청

- 예선대회 : 각 지역별 예선 주관부대
- 본선대회 : 공군사관학교, 예선 주관부대

※ 글라이더 / 고무동력 부문은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한 자에 한함.

경기종목 및 참가자격

부 문	종 목	참가자격
글라이더 / 고무동력	1부	초등학생 1~4학년
	2부	초등학생 5~6학년
	3부	중학생
	4부	고등학생
	5부	대상 제한 없음
유선조종	곡예비행 1부	초·중·고등학생
	곡예비행 2부	대상 제한 없음
	전투비행	대상 제한 없음
	경주비행	대상 제한 없음
무선조종 곡예비행	1부(학생초급)	초·중·고등학생
	2부(초 급)	대상 제한 없음
	3부(중 급)	대상 제한 없음
	4부(고 급)	대상 제한 없음
무선조종 엘리먼트	1부(학생초급)	초·중·고등학생
	2부(초 급)	대상 제한 없음
	3부(중 급)	대상 제한 없음
	4부(고 급)	대상 제한 없음
무선글라이더	1부	중학생 이하
	2부	고등학생
	3부	대상 제한 없음
실물축소기 비행	유·무선 조종	대상 제한 없음

유비행(글라이더 고무동력) 5부·유선 무선 열기 실물축소기 비행부문은 본선대회만 실시

지역별 예선대회 일정

대회일정	대상지역	예선주관부대	접수처 전화	접수처 팩스
4. 6(토)	강원(영서)	공군 3251부대	033)730-4051-2	033)747-4199
	경남(부산이서)	공군 3218부대	055)851-3041-3	055)853-3474
4. 13(토)	부산·경남(북동부)	공군 3875부대	051)979-2051-2	051)979-3750
	대구·경북(남부)	공군 3262부대	053)980-2191-2	053)985-1250
4. 17(수)	대전·충남(동부)	공군 대 학	042)870-4135-6	042)862-1405
4. 18(목)	경북(북부)	공군 3196부대	054)650-4051-2	054)650-5727
	인천·경기	공군 3267부대	031)220-1131-2	031)221-8301
4. 20(토)	서울	공군 3368부대	031)720-3051-3	031)723-7148
	충북(남부)	공군 3629부대	043)210-2051-3	043)214-5139
	충남(서부)	공군 3858부대	041)689-2091-3	041)689-2099
4. 27(토)	제주	공군 5315부대	064)794-1193-4	064)730-1617
	광주·전남	공군 3731부대	062)940-1051, 3	062)944-1923
	강원(영동)	공군 3155부대	033)649-2051-2	033)649-2055
	충북(북부)	공군 3710부대	043)850-2051-2	043)848-5926
	전 북	공군 6822부대	063)470 2047 8	063)470 2640



공군본부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



제17회 공군 창작

작품 공모

참신한 공군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공군 창작 작품을 공모합니다.

- 응모대상** 공군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기술교양생
(군인가족은 찬조작품)
- 작품접수** 2002년 6월 24일 - 6월 29일
- 작품내용** 공군의 활약상, 영광방위의 현장 및 호국의지 등을
표현한 작품과 기타 다양한 소재의 예술 창작품
- 공모부문** 한국화 · 서양화 · 시각디자인(일러스트) · 서예 · 사진 · 프라모델
- 시상내역** 대상(부문별 1명) - 참모총장상 및 부상 400,000원
우수상(부문별 2명) - 참모총장상 및 부상 200,000원
특선(부문별 2명) - 참모총장상 및 부상 100,000원
※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문의** TEL : (02) 506-6239 · (042) 552-6239 · (휴) 6239

